朝鮮日報
夕刊 六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平沼內閣親任式 五日夜七時半擧行

新閣僚는大藏、鐵道、農林、厚生四相뿐

【東京電話同盟】四日夜 組閣의 大命을拜한 樞府議長 平沼騏一郎男은 五日朝來 組閣工作도 極히 順調로히 進行되야 同日午後 閣員의 陣容도 決定되엿스므로 午後四時十五分 宮中에參內 同四時三十分 表御所에서 天皇陛下께 拜謁 삼가 大命을 拜受할 旨를 奉答하고 恭然히 閣員名簿를 捧呈하엿다 惶恐하옵시게도 陛下께옵서 이를 御嘉納하옵시사 平沼男은 一日御前을 退下하엿다 陛下께옵서는 即日 親任式을 行하옵실旨의 吩咐가 게옵섯스므로 平沼男은 추고 鳳凰閣에 參進 同五時四十五分 陛下께옵서는 軍裝을 召하옵시고 鹿兒島式部次長前行, 百武侍從長, 宇佐美武官長以下를 扈從케하옵시고 出御 米內海相 侍立下 樞密院議長 平沼騏一郎男에게 內閣總理大臣親任의 勅語를 賜하옵신後 米內海相으로부터 官記를 授하엿다 陛下께옵서는 一旦 入御하옵신後 新閣僚의 親任式을 吩咐하사 櫻內幸雄、前田米藏、石渡莊太郎、廣瀨久忠의 新閣僚及內相에 轉任하는 木戶幸一侯、商相에 轉任하는 八田拓相、遞相에 兼任하는 鹽野法相은 모두 禮裝을 가추고 順次로 參內 平沼首相 侍立下 午後七時三十分 新閣僚의 親任式을 擧行하야 平沼內閣은 大命을拜한以來 二十時間以內의 記錄으로 成立되엿다

樞密院議長 正二位勳一等男爵 平沼騏一郎
任內閣總理大臣
厚生大臣 正三位勳二等侯爵 木戶幸一
任內務大臣
從四位勳三等 石渡莊太郎
任大藏大臣
從三位勳二等 櫻內幸雄
任農林大臣
拓務大臣 從三位勳一等 八田嘉明
任商工大臣兼拓務大臣
司法大臣 從三位勳二等 鹽野季彦
兼任遞信大臣
從三位勳一等 前田米藏
任鐵道大臣
從四位勳三等 廣瀨久忠
任厚生大臣
內閣總理大臣 公爵 近衛文麿
依願免本官
大藏大臣兼商工大臣 池田成彬
依願免本官及兼官
內務大臣 末次信正
農林大臣伯爵 有馬賴寧
遞信大臣 永井柳太郎
鐵道大臣 中島知久平
依願免本官(各通)

그리고 留任한 有田外相 板垣陸相、米內海相、荒木文相에 對하여는 親任式을 行하옵시지안코 辭表를 同日下渡하옵섯다 그리고 親任式終了後 初閣議에서 內閣書記官長 法制局長官을 如左히決定하엿다

任內閣書記官長 正四位勳二等 田邊治通
任法制局長官 從三位勳二等 黑崎定三

首相秘書官 太田氏로決定

【東京電話同盟】平沼新首相秘書官은 太田耕造氏로決定 如左히 發令되엿다
任內閣總理大臣秘書官 太田耕造

近衛公、樞相에就任 無任所相으로內閣에參列

【東京電話同盟】近衛前首相은平沼首相의後任으로서 樞密院議長에就任하는同時에 內閣官制 第十條에依하야 無任所大臣으로서 內閣에 參列케되여 五日夜內閣으로부터 如左히發表하얏다

正二位勳一等 公爵 近衛文麿
任樞密院議長
樞密院議長 正二位勳一等公爵 近衛文麿
內閣官制第十條에依하야 特히 國務大臣으로서 內閣員에參列케함 (寫眞은 近衛樞相)

軍의要望으로 近衛公樞相에就任

【東京電話同盟】近衛前首相은平沼新首相及板垣陸相의 要望에依하야 樞密院議長에 就任하고無任所大臣으로서 閣議에列하기로되엿는데 近衛公이 樞密院議長을 引受하게된것은 軍의굿세인要望에 基한것으로 이에依하야 新內閣은 平沼、近衛聯立內閣의 强力한黨質的形態를 具備하게된것이다 近衛公은 今後五相會議는 勿論境遇에 依하여는 興亞院會議에도列席하야 支那事變의 積極的 處理에 邁進키로되엿다

無任所大臣根據

【東京電話同盟】近衛公은 五日 樞密院議長에 親任되는 同時에 特旨에 依하야 無任所大臣으로서 平沼內閣에 參列케되엿는데 이의 官制上 適用은 內閣官制 第十條에依하는것이므로 右官制에는『各省大臣으로서 特旨에依하야 國務大臣으로서 內閣員에參列케함을得함』이라는條文이잇서 一般으로 無任所大臣이라고 稱하고잇다 即國務大臣의 椅子는 憲法에는이를限定치안코 官制에依하야 決定되여 內閣總理大臣 各省大臣外에 特旨로써 內閣에參列하는 方途가열려잇스므로 各省大臣과同樣으로 國務大臣으로서 輔弼의責에 任하는것으로 先例로서는 明治二十一年 伊藤博文樞密院議長이 內閣에 參列한일이 잇섯다 最近 昭和五年 濱口內閣에잇서서 宇垣陸相이 病으로 因하야 六月十七日附 陸軍次官阿部中將에 對하야 勅書를 下賜한일이잇다

南總督 平沼首相에게祝電

南總督은 六日平沼新首相에게 如左한 祝電을發하엿다
東洋永遠의 平和를 確保할內外重大時局에 際會하야 國政變理의大任에 就함에 對하야 衷心으로 慶祝의意를 表하는同時에懇切히 健鬪를祈함

大藏次官後任 大野龍太氏로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次官後任은 五日初閣議에서 如左히 決定되엿다
大藏省理財局長 正五位勳四等 大野龍太
任大藏次官(二等)

五相會議와 參議制는存續

【東京電話同盟】支那事變處理의 根本方針決定을爲한 近衛內閣時의 首相中心으로設置된 首相、外相、藏相、陸相、海相의五相會議는平沼內閣에서도 이를踏襲하고 興亞院會議와並行하야 重要事項審議에 當하고 境遇에따다서도 近衛前首相도加하야 六相會議로할意向이다 그리고 內閣參議制도 存續시켜 池田前藏相을 再次參議로하는外에 鐵相에 就任한 前田氏後任도 補充할方針이다

平沼新首相 今夜施政方針放送

【東京電話同盟】平沼新首相은 六日午後七時二十分부터 AK의 마이크를 通하야 『大命을拜하고』라고 題하야 全國中繼放送으로 施政根本方針을 放送하기로되엿다

國民黨副總裁後任에 孫科就任은決定的

陳果夫等은極力反對

【香港五日發同盟】申報重慶來電에依하면 汪精衛의 國民黨除名에 依하야 空位된 國民黨副總裁의 補充에關하야 急遽人選中이든 蔣介石은 汪의後任으로서 親蘇派의 巨頭孫科를 就任시키기로 決定하엿다 孫科의副總裁就任은 當然今後國民黨及政府部內에 左派勢力의 壓倒的擡頭를 招來할것으로 抗戰主流派의 勢力은 增大되는同時에 對蘇親善政策强化에 拍車를 加할것으로 觀測된다

【香港五日發同盟】確報에依하면 지난一日의 重慶會議에서 汪精衛의除名을 決議한以來 孫科一派의國民黨副總裁獲得運動은 俄然表面化하야 各方面에 猛運動을開始하엿는바 陳果夫 于右任等은 孫科의副總裁에 反對를表明하야 이에 猛烈한 攻擊을加하엿다고하며 孫科의 副總裁就任은 親蘇派及 共産黨一致의擁護에依하야 右派의 反對를 排除하고 오는 五中全會에서 正式으로 決定될것으로 想像된다 汪精衛가 나간後 國民黨은 孫科一派、極左派의 野望에依하야 벌서부터 그不統一을 暴露하고잇다 (寫眞은 孫科)

新閣僚들의第一聲

時艱克服에邁進 平沼新首相의初談話

【東京電話同盟】平沼新首相은五日親任式을終了한後 初閣議를마치고 如左한談話를發表하얏다
不肖의身으로서 大命을拜한것은 恐懼하여 마지안는바이다 拜受한以上은 微力을다하야 輔弼의重責을다하려고 생각하는바이다
勿論 國家는 未曾有의 難局에直面하야 이의打開는 容易한것이아니나 皇室의御稜威下 하고 國體意識을 强化하여왓다 現在는 가장그急을 要하는때이므로 益益그結束을 强化할것이다 現內閣의 一般方策은 適當한 時期에 公表할 目的이나 國家의總力을 聖戰의目的貫徹에 集注할것은 勿論이다 그리고事變의 處理에對하야서도 일찌기前內閣이 聖斷을 방들어 確定한 不動方針을세웟스므로이의遂行은勿論이方針下에 對處할 各般의施設은 萬難을 排하고 完成할覺悟이다
全國民의三個年에亘하는出征 皇軍의 多大한勞苦에 想到하야 戰時體制下의 不自由를참고 更히銃後의 勞務에邁進이業도록 注意하고잇슴은 참으로 感激하여 마지안는바이다 不肖는 此際 微力을 奉體하야 全國民과함께 큰事業와큰希望으로써 時艱克服의急에此點等決心이다 (寫眞은平沼首相)

前內閣政策을 大體로踏襲할터 首相과記者團과의問答

【東京電話同盟】平沼新首相은五日初閣議散會後 新聞記者團과의 初會見에서 支那事變方針及 諸政策에 關하야 如左한問答을行하고 新內閣에所信을明示하엿다

問 首相은 內外諸問題에 對하야 前內閣의 方針을 踏襲할생각인가
答 前內閣이取한 大體의方針은 잘알고잇다 聖斷에依하야 決定된 時局에對한 方針 特히 對支關係處理方針은 이미 決定되여잇스므로 그基礎에依할것은 틀림업다 이에 依하야 進捗된 各種施設이잇는바 이것은 完遂치안흐면안된다 그러나 이에끄칠것이아니다 例컨데 前內閣의施設이라도 다시 생각하지안흐면 안될것도 잇고 그대로行하지안흐면 안될것도 잇스니 逐次內閣全體의決議로써 方針을決定하고 實行方法을定하야 着着나아갈생각이고 아직 처음 閣議를 열엇슬뿐이므로 次次具體的意見을 들어 方針을 決定하고저한다
問 前內閣에 五相會議를 存續할생각인가
答 그것은 只今 생각하고잇다 大體로 所謂軍部大臣과 外務大臣 大藏大臣의 所管事項을 第一 重要한部分이므로 이를 五相會議라고하는 名目은別個로하드라도 五人의 主管大臣이 緊密가되여잇는일이 만흐므로 五相이모여서 協議할必要가잇는일은 반드시잇슬것이다 따라서形式的으로는 어떠튼간에 事實上은 두게될것이다
問 內閣參議는 存續할것인가
答 그것도 存續할것이다 缺員補充도 考慮할지모르겟다 그러나 아직決定치는아니하엿다
問 興亞院과 五相會議와의 關連如何
答 그것은大體로 興亞院總裁、副總裁、總務長官等이 가티相議할것은 勿論이다
問 政戰兩略의完璧을 期하기爲하야 軍部大臣其他 個別的으로 定例로會見할것인가
答 個別的으로 各大臣과 相議할必要는勿論잇다 陸相만이아니다 그러나 定例的일가 어떨가는아직생각하지아니하엿다
問 五相會議를 强化하야 會議中心主義를 實行할意思인가
答 그러케할생각은업다
問 政黨出身閣僚는 政黨代表인가 어떤가 그리고政黨에對하야 如何한見解를가지고잇는가
答 日本은 憲法政治를 行하고잇스므로 憲法에基한 議會制度는 尊重치안흐면안된다 그러므로 政黨을無視할수는업다
問 政黨의健全한 發達에對하야 政府는 方策이잇는가
答 政黨의健全한 發達을 余는 일직부터 希望하고잇다 따라서 政黨出身閣僚는 政黨代表라는 意味는아니나 政黨에籍을둔政黨에 힘잇는이를 內閣에一員으로함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答 新黨問題、國民再編成問題에 對하야 余는아직 생각지아니하엿스나 政黨에健全한 發達을爲하야는 政治敎育을 完全히 해가지안흐면 안될줄생각한다 이는敎育問題가되는데日本에 政治敎育의基礎가 어데잇느냐하면 萬民扶翼에잇다고본다 國民은 如何한 職業에從事하고잇드라도 皇室을 扶翼하야 서로努力할것이며 이것이 곳一君萬民의 日本精神이다 政黨도亦是 萬民扶翼이라는것을 目標로하야 發達해가지안흐면안된다 그러하면 各自의私心은 스스로 消消된다 이것이 第一緊要한點이다
問 議會對策如何
答 豫算은 大體踏襲할생각이다 法律案은 檢討해보고 前內閣이 議會에 提出하려든것이라도 或은提出치안흘지모르겟다
問 政務官制度存置에 關하여는 如何히생각하는가
答 全體官制改革은업다 只今考慮中이다
問 近衛公이 樞密院議長으로서 閣議에列席함은 異例로생각되는바 此點如何
答 至今까지 세번例外가 잇섯다 이것은 如何한 理由에基한것이엇는지 不明하나 今回는 그必要를 充分히 느낀것은 內閣更迭에依하야 政府方針이 變更될줄생각할는 對外的으로 不利하고 忌憚업시말하면 近衛前首相이 繼續하야 해줌이조흐라고 衷心으로 느끼고잇다 그러나 徹頭徹尾 前內閣方針대로 해갈수는업다
問 五相會議에 近衛樞相이 列席하는가
答 重要한會議에는 參加를請할생각이다 따라서 五相會議에는 列席을求할터이다
問 企畫院總裁를 決定치안흔것은 改造問題와關聯한것인가
答 總裁는 近近決定될터로 改造問題와는 반드시 關係가잇는것은 아니다 改造에關하여는 考慮하고잇다
問 議會休會終了時期를 延期할생각은업는가
答 只今생각에는 그럴 意思는업다
問 兼任遞相、拓相兩相은 곳補充하는가
答 當分間 그대로 둘 생각이다

國民協力을切望 石渡大藏大臣談

【東京電話同盟】石渡新藏相은財政經濟方針에對하야 如左한談話를發表하엿다
不肖가 不意에 今回大藏大臣을 拜命한데對하야는 粉骨碎身 奉公의誠을 다하고저한다 生覺컨대 東亞永遠의 安定을確保할 新秩序를 建設할것은 我國不動의 方針이다 그리고 이러한目的下에 日滿支를 通하야 經濟力充實發展을 圖하는同時에 國際情勢에對處할수잇도록 國防充實을 期할것을 當面의重要한 具體的目標로하고잇는바 이經濟建設及 國防充實에 二大目標를 達成키爲하야는 今後長期間 國民全體一致協力하야 國家總力을 擧하야 勞力하지안흐면 안된다 이長期建設에 相應한 財政經濟政策의 眼目은 生産力擴充輸入力增進 資金及物資調整公債消化促進及 生産資金에 圓滑한供給을꾀함에잇다고밋는다 이에關한 모든 具體的方策은前大臣이取한바를바더서今後必要에應하야 隨時擴充을行하고 諸方策五相間의 協調竝進을期해갈方針이다 諸種經濟統制도 綜合的國力을 가장高度로發揮함에 必要한限度에서 今後도繼續하야行할必要가잇슴은 勿論이다 特히 考慮할點은 今日까지의 諸方策은 그重點을 戰鬪行爲遂行이란 當面의急需에應함에두고잇섯든便이만흐스나 今後는 이에加하야 恒久的建設的態度를가지고 모든方策을樹立하고 實行하지안흐면 안될줄생각한다 따라서 國民도 此際에 積極的으로 時勢에順應하도록努力하야 國家總力을 發揮하기爲하야 各自各其의役割을해주기를 希望하는바이다 그리고 이目標를達成함에는空然히 因循에拘碍되지말고 積極的으로 必要한施設을 期待해주기를 바라는바이다 此間에스스로 緩急에따라서 잘處理해가야할은 勿論이다 特히 國民生活과 密接한 關係를가진 財政經濟政策을行함에 當하야는 他面國民의 經濟力及生活로하여금 時局에 適應케하도록함이 必要하다고 멋는바이다 今後我國의 걸어갈길은 平坦치는안타 그러나이는 我國이 肇國精神에基하야 躍進을 遂하기爲하야는 期於가지안흐면안되는길이다 余는就任初에當하야 國民各位는잘政府의 意向을 諒承하고 모든財政經濟政策에關하야 充分協力해주기를 切望하는바이다

農林國策을樹立 櫻內新農林大臣談

【東京電話同盟】今次事變에際하야 農山漁村은 一家의中堅인壯靑年을多數戰線에보내고 他面軍需品供出에多大한 犧牲을拂하고잇다 따라서 今後의 農山銃後對策은 참으로 重要緊切한것을痛感하므로 一身을던저 奉公할決心이다 今後의 農林政策은 大體近衛內閣의方針을 踏襲하여갈생각이다 戰時農林國策樹立의眼目은 어디까지 日滿支農業블럭의 完成에두고 그過程에서 農業生産力擴充의目的을 達成하고십다 農業生産의 計畫經濟化 肥料配給制의 實施其他今議會에 提出한 重要諸法案에對하여는 事務當局의 說明을充分聽取한後 方針을決하려고생각한다

板垣陸相談 旣定方針대로 一路邁進할터

【東京電話同盟】今日新內閣의成立과함께 不肖가陸軍大臣으로서 留任하게된것은 恐懼不堪하는바이다
新內閣은 事變新段階에處하기爲하야 前內閣의方針을 踏襲하면서 새로운意氣로써 邁進키로되엿다 支那事變處理의根本方針에關하여는 이미聖斷을맛들어儼然히 確立되여잇스므로 確固不拔의動도하지안흘것이다 陸軍으로서는 旣定方針에따라 一意聖戰目的의完遂에 邁進하려한다

事變目的達成에 一路邁進하라 新內閣과海軍側要望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平沼內閣成立에 關하야 五日 親任式終了後 如左한 當局談을發表하엿다
海軍當局談 事變下에 時局이더욱 重大性을 加重하는이때에 帝國海軍은 新年을마지하는同時에 更히 新銳의 意氣로써 全軍一體 事變處理에 勇往邁進할것을 期하고잇는 突然 內閣의更迭을 보게되엿는데 事變의 新段階에 對處할 不動의國策은 이미 決定된바로 內閣의 更迭에 依하야 變動치 안홀것은 勿論擧國一致의 態勢下에 一意事變의 目的達成에 萬全을 期하는 必要를痛感하는바이다 以上의 見地에 基하야 海軍으로서는 新內閣에 對하야 新鮮한 意氣로써 重大時局에對處할 經綸을 行하기를 期待하는바이다

新情勢에即應次 國防會議設置論擡頭

【東京電話同盟】平沼內閣은 聖戰目的의貫徹을 그根本策으로하고잇는데 最近東亞의 緊迫된情勢에即應하야 國力의 綜合的顯現에依한 軍備整備充實을 꾀하고저此際 帝國國防會議라고 稱할것을設置하라는 說이閣內 有力閣僚로부터 提唱되게되엿는데 平沼新首相이 이問題를 如何히處理해갈지는 內外의 諸事態에鑑하야 자못注視된다

"팟쇼勢力의增大" 內閣更迭과支那紙의批評

【上海五日發同盟】近衛內閣의總辭職은 昨年末의 近衛聲明의뒤를이어 汪精衛의、重大聲明이發表되여 日支關의 새로운情勢의發展을 告한直後이니만치 支那側에與한 그影響은 相當히큰바가 잇섯다 支那各地는 모두大大的批判觀測을 行하고잇는데全部가 自己에게 有利한結論을끄러내려는 支那側一流의 推論에終始하고잇다 即 支那側의批評을 綜合하면 今回의 總辭職의原因은
一、日本內部의 팟쇼的 軍閥勢力의增大와壓迫
二、國際關係에 잇서서 日本의立場이 漸次不利한 形勢에잇는것
을指摘하고잇다 即『日本은 過去十八個月에 亘하는 戰爭에依하야 國力이 疲弊하여젓기때문에 更히軍事의 必要에 對應하기爲하야 强力한 統制權力으로써 日本全國을 完全한 基礎上에두고 作戰을 繼續할必要를 生하기때문이다 그리고또하나는 最近의 米支借款成立及 各國의 對日經濟政策에의 動搖等 漸次國際關係가日本에 不利하게 展開하고 잇는이때에 汪精衛를 利用하야 行하려고한 和平策도 全혀失敗에歸한結果라하고 如斯한 日本의國內的不安에 反하야 中國의 抗戰의 前途는希望과 光明에充滿하야 最後의 勝利는 不遠하다』고全혀 希望的觀測을 行하고잇다

【香港五日發同盟】當地支那紙中에는 今日의 첫머리記事로서 近衛內閣總辭職과 平沼男의 新內閣組閣을 報道하엿는데 主人公인 平沼男을 樞密院副議長 平沼와 混同하야 同氏의 爲人을 擧하고 팟쇼內閣이 成立되려한다고 떠들고잇다

米、明年度國防費 十六億一千萬弗

【華盛頓五日發同盟】米國政府가 國際情勢에對處하기爲하야 軍備擴張·强化를 斷行하고잇는이지음 新豫算敎書에發表될 國防豫算內容如何는 各方面의注目의焦點이되여잇는바 루즈벨트大統領은 五日新年度豫算敎書에서 總額五億弗에達하는 新國防豫算의新設及初年度인明年度豫算에 二億一千萬弗을 計上할旨를 發表하엿다 그리고 一般及特別國防費를加算하면 明年度豫算에計上될 國防費總額은 十六億一千萬弗(但明年度支出實數는 十三億一千萬弗)의巨額에達하고 世界大戰後最大의國防豫算을 構成하게되엿다 敎書는 明年度에잇서서 國防及其他增加에鑑하야 增稅를行할것을示唆하야 如左히 述하고잇다 政府는 政府支出의急激한 縮少에反對하는同時에 過激한 新稅設定에도 贊成키어려우나 國防費及 農業救濟費增加를圖하기爲하야 漸進的增稅에 必要를認定치안흘수업다

八面鋒

平沼內閣의 人物은 大部分이 近衛內閣 閣僚의 留任、新任한 石渡藏相도 次官으로 昇格된이。
◇
그러고보면 平沼內閣은 近衛內閣의 延長。
◇
但 平沼男의 印象이 全體主義의 化身이엇가태서 內外國을勿論코 파쇼化를云謂할뿐。
◇
汪兆銘을 除名한 國民黨、孫科를 副總理로 推戴햇다고。
◇
國民黨이 一層 左翼化하겟군。
◇
抗日支那는 어데로 자나?
◇
오늘이 小寒、추위도 오늘이 極點。春陽來照할날도 不遠。

冬寒期의保健에는!

只今과가튼치위에는 大槪呼吸器病에걸리게되여기침과痰이나며 身熱이나고 몸이漸漸衰弱해저서 닥처오는酷寒에抵抗하기 어렵게될뿐아니라 잘못하면氣管支炎·肺炎을誘發하야 結核이란 무서운重症에 걸리게됨니다。

그러므로 只今이라도速히 ビタミン榮養素를 豐富히補給하야 呼吸器粘膜을强化하고 病菌에對한抵抗力을 强化하는것이第一입니다

世界的强壯劑 네오톤 (NEOTONE) 은 人體에絕對必要한 ビタミン榮養素를供給할뿐아니라 結核菌을殺滅하는 有効成分이適當히含有되야 呼吸器疾患과結核豫防에 特殊한作用이잇는外에消化機能을活潑케하야 食慾을增進하며 身體를强壯케하는名藥입니다。

(本劑를服用하실때는 먼저醫師에게 問議하여주십시오)

ネオトン

004383

效果 本位

適應症

呼吸器疾患·神經衰弱·貧血症·腺病質·食慾不振·産前産後·榮養障碍·病後恢復期

呼吸器補强!

冬寒期의모든疾病은 大槪感冒·氣管支炎等 呼吸器病으로 始作됨니다。그러므로 發病의 根源이라고할수잇는 呼吸器를 未然에强化하야 酷寒에備하시기를바람니다。

(全國有名藥房販賣)

包裝 小甁(一個月分) 中罎(五個月分) 大罎(八個月分)

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天津、臺北、米國羅府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今冬初有의酷寒!

今朝最低溫度零下十九度六 三年來의記錄

소한(小寒)날인 칠일아침 경성지방의 최저온도는 영하십구도육분으로 작오일의 최저기온 십륙도육분에 비하야 삼도나 더나려젓다 이번추위는 소화십일년일월십칠일의 영하이십도일분 즉 그해 최저기록이 잇은후 삼년만에 처음 혹독한 추위다 오늘아침을 한고비로 저녁부터 조금 풀리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제부터 몽고와 북지나에 잇던 고기압이 점점 약하야지는 까닭이라고 경성측후소에서는 말한다

冒寒消防出初式

今朝 京畿道廳前에서盛大擧行

경성소방서 소방출초식은 육일오전열시부터 경기도 앞마당에서 영하십구도의 추위를 물리치고 장엄히 거행되엿다

이날총독부에서는 남(南)총독 삼교(三橋)경무국장 군부로부터는 정원(井原)참모 흑목(黑木)해군무관부판이 임석하엿고 그외에 감자(甘蔗)경기도지사 고교(高橋)경성부윤 하전(賀田)상공회의소두등 다수관민의 참석하에 식은 고(高)경기도 경찰부장의 훈시하에 거행되엿는데 먼저 황거요배 국기게양이 잇슨후 감자지사의 영지봉독(令旨捧讀)이 잇섯고 이것이 끗나자 황국신민서사제송, 점검을 마친후 사백여 소방서원의 분열행진, 다음으로 방화연기에 드러가서 사다리 오르기, 색수방수(色水放水)가 잇슨후 김한순(金漢淳)외 칠명의 오랑서원의 표창식이 잇섯고 고(高)경찰부장의 훈사에 야구(野口)소방서장의 답사가 끗나자 국기강하로 열두시에 식은 끗마치엇는데 마침 이날따라 얼마나 추웟든지 각소방수의 연기때에는 주위로 호-스가 어러붓터 물이잘나오지 아니하야 야단이엿섯다

(사진은 상은 분열식이요 하는 사다리타기연습광경)

水道故障沙汰

수은주가 내려감을따라 수도물쓰는 시내각가정에서는 고장때문에 물이나오지안허 곤난을 격는집이 점점만허가고 잇다 측작년중에 제일추웟든날인 십이월이십구일에는 하로에 사고가 오백구십육건으로 작년일년중에서 최고기록을 지엇든것인데 정초에는 날이따뜻하야 적어졋더니 오일부터 다시만허지기시작하야 오일은 삼백팔십오건 영하십구도를 나타낸 육일에는 오전열한시까지 벌써 사백십구건으로 오십명이나되는수도공사원들은 눈코뜰새업시 각곳을 다니는중이나 수도파열은 어느곳이 대부분이므로 수도파당국자는 이 점을 주의하야달라고 내려가는 수은주를 원망하며 애원하고잇다

皮革、金屬各製品價格指定

京畿道 舊臘告示

物價委員會答申案踏襲 京城府一圓에限定

道內地方은追後하야決定

지난달이십육일에 성양(燐寸)、피혁제품、금속제품、알마이트 제품에 대한공정가격을 결정한바 있섯든 것은 기보한바와 갓거니와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그때에는 경성만에 한해서 전조선일률적으로 결정발표되엿섯스나 피혁제품과 금속제품은 각도에서 다시 그지방사정을 참작해서 지사로 결정발표키로 되엿섯는데 여기대해서 경기도에서는 가른날자인 십이월이십육일부로 경기도 고시제이백사십팔호로써 피혁제품、금속제품에 대한 경기도로서의 아래와가튼 가격지정을발표하엿다 이로써 경기도내에서의 피혁、금속제품에대한공정가격은 완전한 법적실효를거두기에 이른세음이나 우선이번 가격은 경성부에만 한하기로되엿다 그리고 그가격은 전부가 저번 총독부물가위원회의 답신안을 그대로답습하고잇는데 경성부를 제외한 도내다른지방치는 따로추후에 발표할터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도에서는 대개는 이번경기도고시를 표준으로하고 여기에 다시 운임기타를가산해서 따로히 결정할터이다

一、皮革製品

品名	種類	小賣價格(圓)
(靴和製부스)	中等品 並等品	一六、九〇 一六、五〇
牛革製鞄 小形케-스(尺五寸)	中等品	二〇、五〇
同	並等品	一三、一〇
中形케-스(尺八寸)	中等品	三一、二〇
同	並等品	二四、五〇
大形케-스(二尺四寸)	中等品	六一、四〇
同	並等品	五三、五〇
그란드스톤型(大型二尺八寸)	中等品	五二、〇〇
同	並等品	四〇、一〇
보스톤(尺五寸)	中等品	二七、〇〇
同	並等品	一四、二〇
書類入折鞄(尺二寸)	中等品	一六、一〇
同	並等品	一〇、一〇

(一) 右에揭한小賣價十五圓以上의것에잇서서는物品稅一割을包含한價格을표함

二、알미늄製品及알마이트品

品名	種別	容量는寸法又標準目方	알미늄製品小賣價格	알마이트品小賣價格
鍋 寸〔深度內徑의三割〕	內徑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鍋 寸〔深度內徑의五割〕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鍋 寸〔深度內徑의五割〕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顏型鍋〔深度內徑의四割〕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쪼루」付飯盒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湯沸〔標準規格品〕	極大 大 大 中 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辨當箱	深大 大角 中角 小角 栗入大 栗入小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箸付辨當箱	深大 大角 中角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上記알미늄製品은純分九〇%以上의것으로합

(二) 右에揭한小賣價格은京城府에서의價格으로함

品名	外徑	小賣價格
標準釜(深度外徑의 %)	同	[illegible]
特製釜(深度外徑의八〇%)	同	[illegible]
並製釜(深度外徑의七〇%)	同	[illegible]

【備考】右에揭한 小賣價格은 京城府에서의 價格으로함

窃盜妓生

술취한손님주머니에서 百圓짜리훔첫다綻露

술취한손님의 주머니에든 돈을 훔치다가 경찰에잡힌 기생이잇다 소사(素砂)에서 잡화상하는 이범학(李範學)이란 사나이는 오일저녁때 서린정(瑞麟町)천일관(天一館)에서 술을 먹고 고취하야 그만술자리에서 쓰러저자다가 떠서시경에 깨여보니 주머니에드러잇던 돈백원이 업서젓스므로 즉시 종로서에 계출하야 술자리에서 다리고놀든 조선권번기생 박옥처(朴玉處)(二二)를 혐의자로 엄중취조한결과 범행을 자백하는동시에 도둑한돈은 모두 발견되엿다

婦人國語夜學

【宣川】선천소화(昭和)소학교에서는 본부방침에의한 국어보급실시계획에 따라 지난십이월이십일부터 십이월이십일간 부인국어야학회를 동교제일분교에서 개최하엿는데 대시국을 쫏는 지망자는 수용정원거우 일백사십명에대하야 삼백여명이나 된다고한다 동소학교의 여훈도 다섯분의 부단의노력에의하야 놀라운성적을 엇어 지난이십일일 성대한폐강식이잇섯다

三父子가中毒

生命危篤

正初에만두사다먹고

만두를사다먹고 한집안식구세명이 중독되여 생명이위독한사건이잇다 육일오전네시경 시내사직정(社稷町)사십산번지 유여성(兪余成)(四八) 병덕(炳德)(二〇) 영덕(榮德)(一七)등 삼부자는 만두설사와 구토를하고 생명이위독 소관종로서에서 검시한결과 오일밤아홉시경 그근처내수정(內需町)일백오십사번지 김화군(金華君)만두집에서 사구타만두를 사다먹고 고잔것이 중독된것으로 판명되여 즉시 부호정 전치의원(全治醫院)에 입원가료중인바 여명은 구조되엿스나 남은여명은 그대로 총명이 위독하야 경기도위생과에서 분석하기로되엿다

北朝鮮一帶放送網擴充

遞信局新年度事業

京、淸間裸線電信電話擴充

체신국에서는 신사년도부터 삼개년계속사업으로 경성—남양(南陽)사이의 지하「케-불」을 신설할계획으로 신규예산 이천만원을 요구하엿든바 대장성의 사정(査定)에서 자금난과 물자난을이유로 이개년 계속사업으로 삼백이십만원으로 대삭감이 되엿스므로 체신국에서는 당초계획을 근본적으로 뜻더고치게 되엿다 경성—청진사이에 나선(裸線)전신전화선을 증설하야 북선개발에 따르는 전신전화통수와의 함흥、청진 두방송국과 유선연락(有線連絡)을 충실히 하야 시국하에 북선일대의 라듸오망을 충실하기로 되엿다

卒業前實習

遞信局의人員補充策

일거리는만코 사람은 부족하야 헤매이고잇는 철도국에서는 오는삼월에졸업할 공업학교생도를 석달이나 미리다어서 데려다가 채용키로되엿다 즉소화십사년도에 채용키로내정된 내지각중등정도의 공업학교 졸업예정자가 약삼백오십명가량인데 그중에서 일백오십명은 졸업전에 이를앞에 경성에 오게하야 각히적당한장소에 배치시키어 사무를견습시키기로되엿다

京城—海州 京城—江陵 兩航空路

四月一日부터運航

체신국에서는「로-칼라인」의 정비확충을 도모하고저 명년도 예산에 민간항공로의 정비와신설장려비를 계상하야 다음과가튼 두선로를 신설하기로되엿다 이신설되는 두선로는 신(愼)항공사업사의 손으로 오는사월일일부터 운항을 개시하기로되엿다

一、京城—海州線(百三十키로所要時間三十五分)

二、京城—春川—江陵線(二百키로所要時間一時間二十分)

臨時國勢調査

今年七月一日現在 國民消費狀況調査

總督府計劃要綱을發表

장기건설하의 신년을마지하야 총독부에서는 전조선민중의소비생활에 요하는물자의수량액 또는지역적 분포상황배급상황을 알기위하야 칠월일일 현재임시 국세조사를 실시하기로되엿다 이것은 내각에서 이번에 국세조사에 관한법률을개정하야 임시전국국세조사를 칠월일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한후이에대한 통첩이 총독부에 왓스므로 총독부에서도 이에 호응하야 시행하기로 된것인데 그계획의내용은 대개다음과갓다

◇昭和十四年臨時國勢調査計畫要綱

一、조사의목적 소화십사년 림시국세조사에잇서서는 국민의소비에관한 조사를시행한다

二、조사의시기 소화십사년칠월일일 현재로 실시한다

三、조사의범위 (一) 물품판매업

(一) 물품의 제조업자로서직접소비자에 제품을판매하는것

四、조사사항 (一) 경영체의 명칭또는경영주의 성명과경영의조직 (二) 영업의종류 (三) 경영의형태 ・사매점、중개업、소매점、백화점、공동구매조합、공동판매조합、수이상、수출입의형태 (四) 종업사수 종업가족、사용인의남녀별 (五) 그전일년간의매상총금액 (六) 별표(別表)지정물품의그전일년간 매상금액과 구입금액 (七) 별표의특정물품의 연재고수량

五、조사의방법 종래의 국세조사방법에따라경영체에 조사표를 배부하고경영주또는경영체의 관리자로하여금 그소요사항을기입하야신고하게한다 다만 국세조사원이외에필요한때에는 국세조사원을두어서 조사사무의 지도를하게한다

六、결과의정리 조사결과의 정리는 전부중앙집사(中央集査)로하고 소화십오년중에 이를완료한다

◇別表 ▲飮食品類 ▲炊事飮食用器具類 ▲被服類 ▲夜具類 ▲裝身品類 ▲理容用品及化粧品類 ▲住居用家具品類 ▲燃料類 ▲衛生材料類 ▲紙類及文房具類 ▲娛樂運動具類(上記部類中에서指定物品及特定品을適宜選定함)

普專蹴球遂制覇

8 — 0

早大專門部를零敗

全게임에一點도不許한偉績

【東京支社電話】大日本蹴球協會主催의第一回全日本實業團蹴球大會決勝(?)…普專對早大專門部戰은五日午後二時부터東京帝大球場에서西川氏審判下에開催되엿는데 前半에一點을取하고 後半에는 七點을 連取하야 普專은 早大를 八對〇으로 零敗시키고 優勝하엿다

【決勝戰】普專8(1—0 7—0)0早大專門部

이로써普專은 이大會에서 三게임에 得點은 二十二點이고 失點은全無라는 不敗의記錄을지엇다

【第三回戰】(延長九十分) 普成專門4(1—0 3—0)0名古屋高商

【第二回戰】普成專門10(2—0 8—0)0福岡高商

【準決勝戰】普成專門4(3—0 1—0)0名古屋高商

全日本學生氷上順延

氷上界의第一陣인 在東京學生主催第十四回全日本學生氷上스피-드選手權大會는 五日午前十時부터 長野縣上諏訪湖에서 擧行될豫定이엇스나 八日午前十時에는 外人과對抗하고 九日 大阪高商과 十日後四時十五分 京城에 到着하리라한다

淑明敗北

簡易保險에게

四十一對廿四로

【東京支社電話】第九回全日本綜合女子籠球選手權大會에 出場한 淑明高女는 第一回戰에서 昨年의 優勝者 東京簡易保險과 對戰케되여 昨五日午後四時부터 國民體育館에서對戰한바 實力의差는 어찌할수업서 前半에二十一對九로 簡易保險리-드 後半에는 二十對十五로 結局 四十一對二十四로 淑明은 明年을期約코물러섯다

簡易保險41(21—9 20—15)24淑明高女

普專럭비-歸京

第十四回全日本高專럭비-大會에 出場하야 第二回戰에서 慶應豫科에게 八對六으로 含淚惜敗

比島遠征中의籠球代表片信

比律賓에 遠征中인 籠球代表로부터 다음과가튼 短文을 本社運動部에 보내왓다(香港을지나며 熱海丸에서)

◇…延專諸君을 相逢하여 長崎를떠난지도 벌써三日、海上生活이 퍽이나 거칠게되엿스나 意外로 波濤가업서서 愉快한航海를하며 規律잇는 海上生活을 하고잇습니다 明廿四日은 香港을거처서 一路目的地인 比島에向하나이다 서울은 추웟지요 우리는 漸次 더운곳으로 갑니다(張利鎭)

◇…新年을 마지하야 여러분의 健康을빌며 우리의 무거운責任을 다하고저 닥처올對米國戰에 全力을 기우려보겟습니다(吳東烈)

◇…波濤는 잔잔하여젓니다 우리들은 여러가지 感動의말씀을 드리지안흘수업습니다(崔得波)

◇…『謹賀新年』未熟한 技나마힘것차우고 오겟습니다(金麗南)

◇…一九三九年을 마지하야 一層朝鮮籠球의名譽를위하야힘쓸것이며 技術兩方面에 遜色업도록 精神과 하겟습니다(吳鼎照)

◇…感謝으로 無敵히 航海를 繼續中입니다 別다른뉴-스를傳하지못하여 未安합니다 그러나 付託하신寫眞을 보내오니 바더주세요(李好善)

만 될것이 얼마든지 잇슬것이로 욕조(浴槽)속에 드러간다든가▲자기표준으로 친절히구는 척 하든다든가▲물을 푹대에 담은 의머리나 면상에 물을끼언는다든가▲물통을 두개세개 차지하고 길목에 버티고 안는다든가▲가장뛰어난 건강법이나 시행하는듯이 냉수를 더퍼쓸때 남의몸에까지 끼언는다든가▲정한물로 돌리지안는다든가▲욕장에서 칭을배잇는다든가▲탈의장(脫衣場)에나와서남의코아페다 보선본지를털다 옷을 턴다든가▲예절을모르는 고남에게불쾌를 주는일이 이로세일수가업슬것이다▲공동생활은 문화생활의 첫조건일것이니▲문화인으로자처하는사람의 명심할조건!

공동목욕탕안에 드러가보면 정차간 도덕이상으로 공중도덕을 짝지켜야

劇團劇研座二十二回新春大公演

카(復)츄(活)샤 五幕六場

入場料 普通50錢 學生40錢 晝間30錢均一

一月六日(金)夜 七日(土)晝夜 八日(日)晝夜

開演 夜間七時 晝間一時

府民館

ラヂオの雅歌

RKO大超作 音樂映畵

世界の歌姫 リリー・ポンス 主演

トップハットのエリックブローア 目擊者のチアネルリ 矢へる地下線の ジョン・ハワード ジャック・オーキー 助演

ラオール・ウオルシュ 監督

日本浪曲界の女王 天中軒雲月の浪曲トーキー

祖國の花嫁

雨ふれど嵐荒べど女郎花 散らず汚れず咲くものを 女は弱いと誰が說く…

伊賀山正德 監督

村田知英子 星ひかる 主演

鞍馬天狗

日活・京都特作

嵐寬壽郎 主演 龍虎捕搏の卷

8日より

黃金座

生徒募集

京城工科學院

測量科 百名 鑛山科 百名

▲測量科 一個年卒業 ▲鑛山科 六個月卒業 ▲學則請求 要三錢切手

出願 昭和十四年二月七日까지 考査 同年二月八日

京城府蓮建町一九五 電光一七三番

(元京城測量技術講習所)

短期養成

無線電信技士

修業六個月(一月二十日より六月二十日) 七月遞信局定期檢定試驗二第三級資格ヲ得セシム(學則要二錢)

募集人員 二十名(先着順) 入學資格 小學卒業以上十七歲より二十五歲迄の男子

私設、海、陸無線電信技士養成

京城驛前 朝鮮無線工學講習會

凍傷にアスター

慢性 急性 淋疾에 ネオヂリン

各地有名藥店에잇다

定價 一圓・二圓・三圓・五圓・十圓

攝生法

製造元 山本回生堂製藥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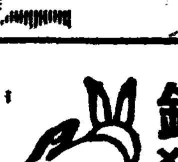
朝鮮總代理店 株式會社 木村藥房

首陽店

京城 首陽店

工業案內

銀狐兎、안고라兎



廣島縣安佐郡龜山村 龜山農園養兎研究所

中央飴飯

檢眼無料 (學生限)

檢眼於本院眼科

◇檢眼◇ ◇眼鏡◇

京城驛前 セブランス病院

セブランス眼鏡部

그것은 金鶴香油이만드러내는머리…자랑스러운머리!

金鶴香油

時計 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H.H.H
最高級品

구두를튼튼케하는
サンエッチ(상엣취)
靴クリーム(크림)

本舖 東京 大阪 新藤商店

昭和의常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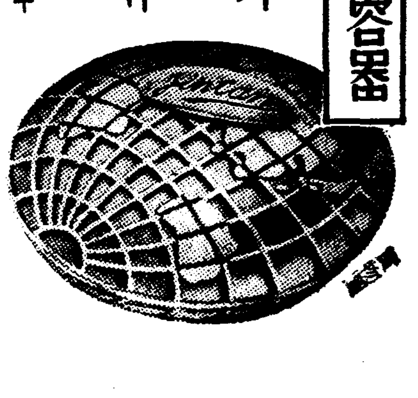
멧세ー지란 一定한相對에게내논것 스테ー트멘트란公然한言明、콤뮤니케는摘錄發表

政府의大聲明은

東亞의新秩序에「防共」은 絕對한것이라고, 擧國結束을 要求하고 長期의 建設에는 斷然「體育」의向上에基하라、고 참으로이의 再認識이야말로 年頭即行의 緊急責務이다 仁丹은玆에 兩容器를 提供하야써 그實踐에資함

仁丹

頭痛에는 반드시 곳 爽快케되는 仁丹을
胃腸을 튼튼케함에는 日常仁丹의常用을



仁丹の防共容器
地圖를浮出시킨 實로使用키쉬운新型
(銀粒仁丹五十錢包에添附)

仁丹の体育容器
뿔模樣을 새긴 堅牢한 新樣式容器
(銀粒 五十錢包에添附)

● 頭痛에는 곳 仁丹

—大補公印—

新春から… 始めて下さい!この健康法
(새해부터 시작해주십시요 이건강법)

今年은更一層!明朗하게지내주십시요 病가튼건 다지마치고 만히活動해주십시요 그러케함에는 먼저口腔으로부터 一步一步健康强化해가십시다 颯爽……한香味! 强力한 殺菌性能! 獨特한 清淨美白作用을 가지고잇는 科學的인 クラブ齒磨로 齒와齒齦부터 단단히 强化해갑시다 틀림업시 銃後의責務를다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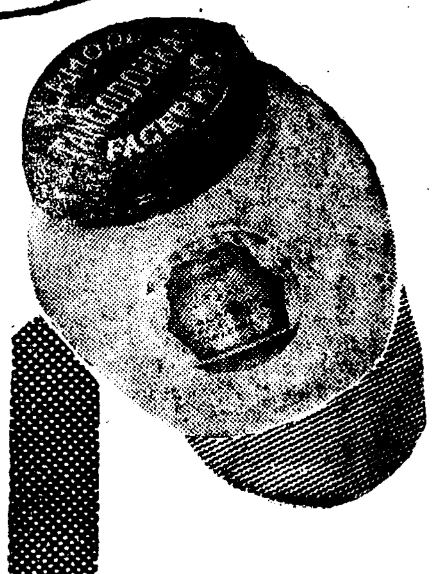
★小十三전以上各種 ★中十八전 ★廿五전 ★大 入二五전

專賣特許の殺菌劑及びヨードチモール・クロールカルヴァクロール配合

藥用
クラブ齒磨 (쿠라부)

藥用クラブコドモハミガキ

크림·化粧水·白粉의三重作用이一品으로
한벌에作用하는·美와魅力의스피ー드化粧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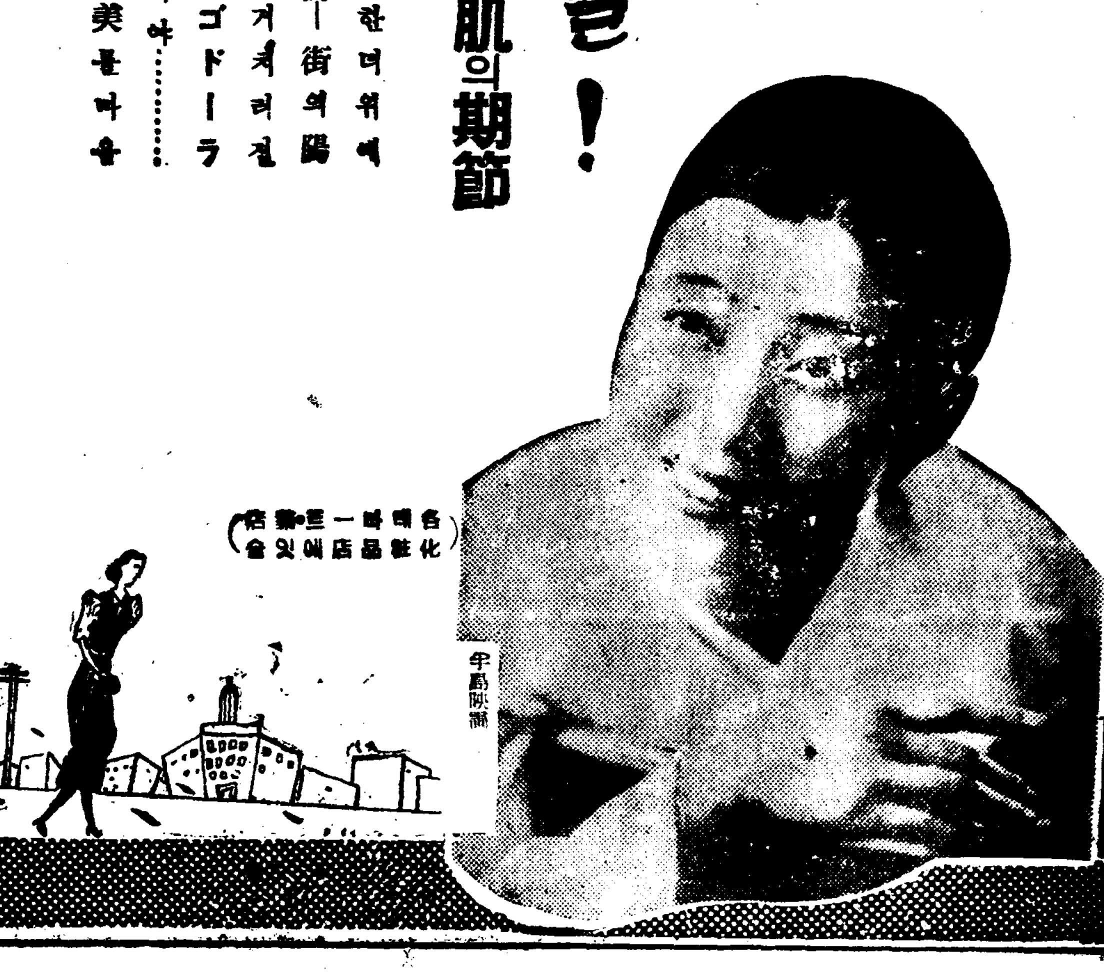
タンゴドーラン (탕고도ー랑)

004384

化粧의 가을!
只今이정말整肌의期節

한여름 저는듯한더위에 海의陽―山의陽―街의陽 뜨거운햇빗에 거치러진 살결을「タンゴドーラ ン」으로一掃하야………… 내가가진健康美를마음 껏자랑하자!

(各데파ー트·藥店 化粧品店에잇슴)



TANGODOHRAN
얼골色에따러
一般婦人에게는……肌色
벗이흰분은……白色
벗이푸르죽죽한분은……淡紅色
히지안는분은……早鳴色
蒼白한 분은……爽健色
벗이붉은분은……新鮮色
尖端的인分에는……明朗色
定價各色一個六〇錢
海外郵送料加算

東京 大阪 株式會社 宇野達之助商會 ● 黑鳥メール本舖

정으로주는것이나 겁나는돌림술ㅅ잔
납분병들이이기회에전염된다
결핵균은술에안죽어

새해가 되엿다해서 갑잣마다 술ㅅ자리가 벌어지게됩니다.

그런데 연회석에서 가장이상스런풍속은 술잔하나로여럿이 마시거나 그러치안흐면 제가 마신술잔에 술을따러서 다른사람에게 권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친밀한 정을표시하는것인데 그점은조흘지모르지만 위생상으로볼때는 극히 재미업고 또는 예의로보아서도 그다지 고급취미라고는할수업습니다.

다른사람의 입술을 댄술잔을서로받구어마시면 그로말미아마 전염병이 옮아다닐것쯤은 현대인의 상식으로 넉넉키 짐작할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일전염되기 쉬운것은 결핵과 매독입니다.

폐결핵환자도 아조중한사람은 벌서 술을마실 기력이업서서 자기자신도마시지안흐려하니까 문제가 업지만 폐가 대단히 납븐데도불고하고 거드로 매우 원기가 왕성한것가튼 사람이잇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도이상스럽게술을먹고 떠들며 헛기운을 쓰는데 이러한사람과 술잔을가치쓰면 그땐 고맙게도그균을 자기가 바더드리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폐결핵환자의 담(痰)가운데는 무수한결핵균이잇기때문에 이러한환자가 입술을댄든 술잔에 균이부터잇슬것은 정한이치입니다.

그리고 결핵균쯤은 술가온데잇는 알콜때문에 죽을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건 천만에말슴입니다.

결핵균은 그만한물론 죽지안습니다. 개가 결핵에 걸리는것은 퍽드문일인데 만일결핵에걸닌개를 그병이전염된경노를 살펴보면 반드시결핵환자가 먹던 음식그릇을핥엇다든지한것을 차저낼수잇습니다.

그다음 매독은 술에대해서 그균이 퍽약한데 만일매독의잠복상태에잇는 환자가 마시든술잔을받구면 소위 구중매독(口中梅毒)이되여서 입속에 헌데생기게되로부터균이나옵니다.

이건 직접으로 전염하는것이기때문에 헌데생각하면 소름이끼칠지경입니다.

사람의 입술엔 우리눈에보히지안는 흠집이잇는데 매독균이 바로 이흠집으로 드러가 구중매독을만드니 이거야말로 억울한노릇이 아니오리까.

더구나 이구중매독은 자기몸에 전염되여잇스면서도 대개는 자각하지 못하기때문에 더욱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말일 이러케한술잔으로 여럿이 마시자면 한사람식 마실때마다 술잔을 끌는물에 소독해내면별일업겟지만 사실 연회석에서 이런거치장스런일이야할수는 가능한게 아니겟습니까.

그러므로 천하의주객들은 비록 정은 섭섭하지드라도술잔은자기것으로 처음부터끗까지마시고 구태여 남에게내술잔으로 권하지맙시다.

長篇小說
愚氓 【198】
朴泰遠 作 洪祐伯 畵

쫏기는몸 (3)

대원님과 장봉자가 집을 나설 차비를 다 차리고 낫슬때 바루 약속이나 한듯시게 뒷창미다지 밖게 기침소리가 들렸다.

『대사냐?』

『네―。』

『사랑 일은 어찌 됏느냐? 말끔 처리를 하엿느냐?』

『네―。대강 급하온대로 하엿습니다. 아직 좀 남기는하엿사옵니다만은 그것은 근동우에게 좀 남아서 하도록하시옵고 그만 한시바삐 청량리집으로 가시는게 어떠하올까 하옵니다.』

『옳다。그리하자。』

전영호은 벽장속에 간직하여둔 손금고속에서 잇는돈을 말끔 꺼내어 주머니에 너코 구경득이와 함께 장봉자를 데리고 집을 나섯다.

시랑 대문 여풀 지낼때 장봉자는 대원님을 돌아보고,

『오빠두 아주 함께 데리구안가시구……』

하엿다. 그말의 대답으로,

『무얼……, 아직 사정이 그리절박한건 아니라, 일이나 마치고 오라고 햇스니깐……』

하고 대원님이 일러준말에, 장봉자는 우선 안심을 하고, 그들을 따라 골목을 걸어나가던 것이나, 그대로 자기의 오래비 장동오와 영리별이 될줄은 귀신이 아닌 몸으로서 꿈에도압려이 업섯던 것이다.

거리에 겨울 새벽바람은 매우 찻다. 전차길에 나서자 마침 차부로 돌아가는 빈 자동차를 한대 만낫다. 세사람은 곳 그것을 잡아타고 동대문밧용두리로 향하엿다.

『참 심봉사는 어데 갓느냐?』

『한걸음 압서서 용머리로 나갓습니다。여러가지 준비도잇슬게고 하여……』

『응 잘 햇다。』

대원님은 지금쯤 건영이놈이 어데서 어떠고 잇슬것인가!―하고 잠깐 생각하엿다. 한젓훈분한 그자가 직시 경찰에라도 이일을 고소하엿슬지 모르겟다는 추측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랏다.

이미 경찰은 활동을 개시하여 왕십리 윤천의집을 습격하엿슬지도 모르겟다는 생각도드렷다. 그러나 그는 영경정본부에 한하여서는 적어도 당분간 안전하리라고 밋는다.

비록 자기가 칼을 빼여들고 건영이놈을 겨누엇슬때 최인회와 윤천이의 부녀가 본증쥐오로 자기팔에 매여달려 그것을 말리기는 하엿드라도 이미 백백교를 맹신하기 오래인 그들이다. 경찰에서 설혹 어떠한 정도의 엄중한 취조를 밧는다 하드라도, 그리 쉽사게 본부의 소재지를 자백하지는 안흘게다.

전영호는 다시 생경섭섭에다 남기고 나온 식구들을 생각하여보앗다.

근동위 장봉오와 갈튼이는 물론 뒤쫏차 나오기로 되엿지만 칠성이 모녀에게는 아무런 분부도 안하고 나왓다. 그것에는 이유가 잇다. 만약 한때에 집을 비어버린다 하면 우선 드나드는 장사아치라든, 이웃사람들에게 의심을 살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한시 란도 자기들의 몸무에 경거와 수사의 손이 일직 빼치것을 전영호는 염려하는것이다. 더구나, 칠성이 모녀로 말하면, 참말이지 누구보다도 자기의 명령에는 절대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록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잇다하드라도, 교의 비밀을 말하는 일이 업슬것이다.

그러한 그들을 희생시키는것은 가여웁기는 하다. 그러나, 역시 자기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어찌 할수 업다고 전영호는 생각하엿다.

(역시 양평으로―)

전영호은 유리창틈으로 새여드는 새벽바람에 몸을 움추리고 안자서, 암흑을 헤치며 나가는 헤드라이트를 바라보며 혼자 속으로 작정이다.

하여튼 용머리집에서 우선 잠깐 쉬엇다가, 날이나 밝거든 양평으로 나려가리라―, 그래 거기서 동정을 좀 살핀 뒤에 그때 다시 방침을 세우리라고 마음먹엇다.

그러면서도 한편, 사기가 이처럼 낭패하기가, 모두 최건영이 까닭이라―생각하니 어떠케든 기회를 어들수잇슬때, 그의 목숨을 빼앗어 원을 풀지 안코는 못견디겟다고 결심을 하게 쉬지 안흘수 업엇다.

라디오프로그람

六日(金曜)

◇午後六時 이야기『各地方의正初習이』 金道泰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토끼와傳說』 車相瓚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新年展望』(六) 總督府社會教育課長 金大羽
◇同八時 (東)피아노와管絃樂 피아노協奏曲 第五番變E長調『皇帝』―베―토벤作曲― 피아노獨奏 井上園子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齋藤秀雄
◇同八時四〇分 南道歌謠 農夫歌 丁南希 吳太石 申永學 申快童 金相鮮 金芳淳
◇同九時 라디오小說 옷고간달―安夕影作― 申카나리아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 (東)講演
◇同七時三〇分
◇同七時四〇分 (自上海)
◇同八時 (東)피아노와管絃樂
◇同八時四〇分 (東)콩트
◇同九時一〇分 (東)時事解說

七日(土曜)

◇午前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〇時三〇分 氣象通報 家庭메모 日用品時勢
◇午後零時五分 (東)土曜콘서―트(第五十四回)『로―키―主題에依한幻想曲集』 東京放送管絃樂團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正初에만흔冒險障害』 醫學博士 金東益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노래공부(一)『눈꽃이』―尹石重謠、任東爀曲― 吳貞淑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趣味講演 술이야기 黃義敦
◇同七時 뉴―스 銃後美談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講演『新年展望』(七) 東亞日報社長 白寬洙
◇同八時 歌謠曲 一、내채속에내가마젓소(金) 二、눈물의詩集(李) 三、꼿피는樂地(金) 四、님도꿈이러가(李) 五、衣裳鄕(金) 六、꼿가튼純情(李) 七、南無阿彌陀佛(金) 金海松 李玉蘭 伴奏 京城放送管絃樂團
◇同八時三〇分 野談 〃借米夢龍〃 張玉軒
◇同九時 京畿歌謠 一、小春香歌 二、遊山歌 三、船遊歌 張玉葉 申蘭秀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土曜콘서―트

八日(日曜)

◇午前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第一放送에依함)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同正午 (東)時報
◇午後零時五分 (東)管樂器獨奏 進五郎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新作이야기『아버지』 朴昌遠
◇同一時三〇分 輕音樂(레코―드)
◇同四時 뉴―스
◇同六時 노래공부(二)『팽이』―金順禮謠、金聖道曲― 吳貞淑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明倫學院 安寅植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〇分 新民謠 一、노돌江邊 二、靑年歌 三、金剛山打鈴 四、달거리 五、빅늬리야 權環蘭 崔蓉成
◇同八時 맨독린合奏 一、組曲妖女의춤 吳宗秀作曲 二、몰레토(몰레도의거리)메차카―포作曲 高麗맨독린앙상블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希望의새해』―方仁根作― 金福鎭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春香歌中獄中歌 鼓手 韓成俊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明日曆 翌日順序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東)管樂器獨奏
◇同六時 라디오바라에티(自嘉義)
◇同六時二五分 (京)趣味講座
◇同七時三〇分 (東)日曜演藝
◇同八時 (東)時局講座
◇同九時一五分 (大)歌謠曲

載寧

殷栗求王鑛山事務所 崔東鮮

明新尋常小學校 明新女尋常小學校 菊花尋常小學校 五成補習學校 農業補習學校

賀正

載寧藝妓組合 安竹心 宋山玉 李黃玉 林昭仙 李花月 韓芙容 尹鳳仙 李素紅 李春深 鮮千椿姬 鄭錦姬 李一枝花 安山月

天下의님이여 빗나는이새해 만흔福 바드옵소서

朝日自轉車商會本店 主 安萬金 電話一〇六番

載寧濟衆病院 院長 裵義林 主任醫師 洪命吉 醫師 劉彼得 光에科 李元述 電話二六番

冥國煥商店 電話五一番

載寧殖産公司

載寧邑 胡麻油 皮麻子油 荏子油 卸商 李成柱製油所 電話一四五番

載寧邑內 東一齒科醫院 齒科醫師 金炳鎬

朝鮮黃海道載寧 鄭寅材木商會 電話二五番 振替京城三〇五三

印刷紙物文具肥料 載寧商事株式會社 電話二〇番 振替四〇六七番

三江面職員一同

黃龍消防組 組頭 郭永敦

三江面青龍浦 ㄱ運送店 電話五九番

載寧邑醫師會

明新中學校長 金熙完

載寧新換浦 荷物取扱 海陸運送 倉庫營業 保險取扱 丸洛運送店 電話四五番 振替京城三三八五番

黃海道載寧新換浦 德昌商會 主 沈德洙 電話五三番

信川郡加山面松遂里 柳河遠

金鳴準 洪良殷

黃海道載寧邑 菊花釀造株式會社

光信學校

金石商會

日新組合

載寧殖産組合

曾盛商會

和信連鎖店

ㄱ運送店 主 裴明周 電話一一七番

黃海道載寧 載寧タクシー貨物自動車部 延舜善 電話二七番

大東商會 電話一〇一番

載寧邑文昌里 高等理髮館 主 康文興

李宗杓

白曇瑄

信川郡加山面白石里 白萬基

車淳燦

三江面普成學校 金宇鏞

黃海道載寧邑內 共成商會

載寧穀物協會

梁孝植

黃海道載寧邑 米雜穀委託業 白萬協商店 電略(백)又ハヘク 電話五八番

協同組合

李鳳鎬

載寧郡西湖面新換浦 加藤農場主任 金兌永

益壽藥房 電話七〇番

崔應煥

群山 韓寅洙

文鍾龜

文袁泰

群山府昭和通 株式會社 共同金融社 取締役社長 光富嘉八 專務取締役 李喜濬

群山府本町二丁目二 米雜穀 玄白米 米糠飼料 直輸移出 ㊅三惠商會 電話五六七番

全羅北道 道會議員 盧兢湜 沃溝郡

群山 新興酒造場 金敬台 電話三六三番

群山薪炭株式會社 群山水産株式會社 代行經營 全義鎔 群山薪炭市場

群山府藏財町二二一番地 京城護謨合資會社 代表社員 李晩秀

群山府昭和通二丁目 世昌醫院 院長 姜世馨 電話八二二番

開井面開井里 熊本農場

沃溝 五日會

群山綿布商組合一同

絹布商 一新社 群山府榮町 電話一〇七六番

群山府仲町二七四 毛皮ナメシ及染色 諸毛皮革製造 半島製革社

群山府會議員一同

群山 玉山堂藥房 電話二〇七番

群山府昭和通 昭和酒造場 權泰亨 丁斗鉉

株式會社 群山昭和劵番 取締役社長 朴在孝

群山辯護士團 齋藤宗四郞 長興護三 山口吸一 曹圭瑛

群山遊廓組合

群山榮町 沈學允 電話九四一番

群山府日出町 朝鮮精米株式會社 群山支店

沃溝郡開井面地境里 大野産業組合 組合長 康有眞 理事 徐善同

沃溝郡沿縣面事務所 面長 朴憲哲 書記 金昌玉 林日仁 金宗烈 文黎元 申啓澈 金煥坤 申柏九 文秉淳

群山線地境驛前市場通 群山美髮館 主 朴盤石

湖南線地境驛前 至誠堂醫院 公醫 金亨植

群山線地境驛前 回生藥房 主 梁在錫

沃溝郡開井面通使里 梁在禹

群山府昭和通二丁目 普和醫院

群山府藏財町四五 籾摺業 金壹東商店

群山府行町イ四番地 繩叺貿易 永信商會 洪斗杓

沃溝郡瑞穗面馬龍里 盧東根

全羅北道漁業組合聯合會 理事長 中村山二萬郞 理事 片山七郞

群山府榮町三丁目 眼鏡萬年筆 眼鏡商 光眼堂 電話一〇六九番 振替京城二〇三一九番

群山籾取引改善組合 電話四七五番

朝鮮群山府榮町二丁目 諸工業原料古銅鐵商 朴金石商店

朝鮮群山府本町 不二興業株式會社

沃溝郡 面友會

京南線長項驛前 繩叺穀物 繩叺商會 申鉉澤

群山 松場蜜三郞

沃溝郡廳 職員一同

群山府尹 佐藤德重

群山商工會議所會頭 赤松繁夫

群山府開町十四番地 合資會社 東亞精米所 代表社員 李宗煥 電話長六一〇番 四六二番 精油部三二八番

群山府榮町一丁目二 米穀肥料 群山商會

全羅北道道會議員 群山 樋口虎三

全羅北道道會議員 群山 宮崎保一

群山商工會議所 議員一同

沃溝郡瑞穗面金光里 高漢珪

會員組織 群山米穀取引所

會員組織 群山米穀取引所 會員組合

朝鮮群山府外開井里 株式會社熊本農場 慈惠診療所 醫學博士 李永春 醫師 鄭仁熙

群山府江戶町 安東醫院 院長醫學士 權泰亨 電話四三六番

群山府昭和通二丁目 博濟醫院

群山木曜會

群山土曜會

群山地境驛前 李聖烈

地境穀物改良組合

沃溝郡公立農業實修學校 沃溝郡公立小學校 職員一同

湖南線地境驛前 朝鮮料理 料理場 主 田公玉

沃溝郡大野面廣橋里 張判善

群山府江戶町 米穀商 二葉商會 姜順用

群山昭和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群山府京町 永善 電話五一二番

群山鮮酒酒造組合

指定販賣人 朴茂景

崔順烈

沃溝郡沿縣面事務所 文鍾燮

沃溝郡瑞穗 康邦鉉

沃溝郡大野面光活里 具齊瑋

日本生命保險會社員 高福述

代書士 李要漢

群山線地境驛前 共榮自轉車商會 主 李英林

北鎭

孟北貨物自動車合資會社 電話一三番

雲山郡北鎭 鑛業 朴春根 電話四五番

雲山郡北鎭 鑛業 王熙淳 電話五二番

雲山郡北鎭 高等料理 高麗館 (兼業)高麗食堂 主 李錫濬 電話三四番

雲山郡北鎭 春景園食堂 主 金光浩

雲山郡北鎭 自動車修理部分品販賣 大同商店 主 劉權瀅 電話四七番

雲山郡北鎭 みどり食堂 主 張昌順

北鎭警察署

北鎭百貨店 主 康載律

和信連鎖 月林百貨店 電話四〇番

北鎭面長 金永彬

公醫 裵哲淳

鑛業 鄭樂均 電話一五番

北鎭郵便局員一同

雲山郡北鎭 金山印刷所 主 林時達 支店‧昌城大榆洞

北鎭齒科醫院 齒科醫師 金在浩 平北雲山北鎭 振京二七〇六三

北鎭 朴亨奎

己卯年을 通해본政治家

高麗太祖 ①

湖岩

高麗一代를 通하야 政治家를 꼽자면 君主中에는 統一의業을 이룬 王太祖를 먼저 꼽어야하겟고 宰相中에는 文武의材略을兼한 姜邯贊을 먼저 꼽어야 하겟고 權臣中에는 四世國柄을弄하던 崔忠獻을 먼저 꼽어야하겟다.

太祖、邯贊및 忠獻은 비록그人物의 高下와 事功의 大小는 다를망정 각기特色잇는 政治家인것을 否認할수 업다. 그러나 世人이 太祖와邯贊의 英傑임을 알지마는 忠獻의人物에 對해서는 흔히 깍는다. 現代人의 새로운 角度에서본다면 忠獻은 一種『팟쇼』政治家이다.

高麗史를 讀하건대 太祖의 繼祚와 忠獻의死亡이 모두 己卯에 일어난事實인즉 새해己卯를 當하야 한번 이들의人物을 追憶하고 論評함도 반드시 無益한일은 아닐가 한다.

이로부터 己卯와 關係잇는人物중에 特히 太祖王建과 權臣崔忠獻을 말하려 하는바 자못 姜邯贊만은 己卯와 아무 關緣이 업는人物이나 高麗政治家로서의 크게 한목을 보게 되므로 그를 太祖와 忠獻의 두사이에 加入하엿다.

그리하야 太祖、邯贊및忠獻의 三政治家를 年代順에 따라 차례로 批評하게 되엿다.

一、大帝王 王太祖

王太祖王建은 高麗一代뿐이아니라 古今創業主中에 드물게보는 英傑이다.

新羅末에 紛亂한 群雄中에잇서 甄萱과 弓裔가 가장超出하엿스나 到底히 太祖의敵이 아니다.

그人物의 如何는 從來成敗得失의 史實그것이 잘證明하는바니 구태여贅說을要하지안는다.

亂世의風雲을 타서眇少한 一靑年으로 일어난 王建은 十九歲에 鐵原太守가 되엿다.

이로부터 弓裔의部將으로 자주 戰功을세워 累進하야 三十七歲에 泰封侍中이 되엿고 四十二歲에 部下의推戴를 바더 高麗太祖가 되엿다.

그리하야 即位후 다시 新羅를 降伏밧고 後百濟를 討滅하야 六十歲에 비로소 天下를平定하엿다.

이로보면 太祖가 草野에서 崛起하야 帝王이 되기 까지는 二十餘年을 要하엿고 帝王이된後에도 統一을 完成하기 까지는 또 다시 近二十年을 要하엿스니 그 創業은 대체로 晩成한 셈이다.

일직 朔北의野에서 迅雷의勢로 滿洲의經略을 行하던 저渤海太祖大祚榮과 比較할때 高麗太祖의創業은 너무나 緩慢한感이 업는배 아니다.

그러나 도리켜 생각하면 太祖가 太祖된 그大本領이 차라리 여기 잇다 할것이니 太祖는 萬事에 對하야 아모조록 時機의成熟을 기다려 圓滿한解決을 짓고저 하엿다.

그러치만 한번 機會를 捕捉하기만 하면 電光石火와 가티 急轉勿失하엿스니 弓裔가 失德할때 一夜에 推戴를 바더 스스로 帝王이 되엇고 甄萱이 金城을 焚刧할때 어느틈에 新羅를 달래여 恩義의關係를 매잣고 甄萱의父子가 不和할때 一擧에 討滅하엿다.

學藝

支那文學과 朝鮮文學과의交流 (中)

金台俊

新羅는 慶州六部落에일어난部族國家로 三國末葉까지는 辰韓十二國의하나인『斯盧』國이엿다 이斯盧國은 花郞制度라는 特殊한權力裝置와 奴隷勞働의 强徵에依하야

末

久에 辰韓十二國그他 慶北一帶를合併하고 伽倻 制駕洛國은 弁韓十二國 그他慶南一帶를 合併하야 畢竟 法興王 眞興王代엔 駕洛國까지도 合併하엿다 이眞興王은 版圖를넓키는대로 巡境하면서 巡狩碑를세웟는데 지금 發見된것이 四個다 昌寧 北漢山、黃草嶺 磨雲嶺碑等——

이碑石이야말로 가장朝鮮의鄕土色을濃厚하게가진最古의것이다 이碑石에는 眞興王을모시고다닌 多數한貴族들이 하나도姓이업고 그官名 地名 文章이 純全한吏讀도아니고 支那古文도아닌 비빔밥이다、支那의文章法을 아직도 消化시키지못한 當時貴族들의 漢文敎養의程度를推測할수잇다 그러치라 鄕歌니 吏讀文이니하는것이 이때부터盛行하기始作되엿다, 조선의鄕歌集인三代目이란책이 編纂되엿다。

이때의노래는 吏讀로써잇는데

支

那式思考形態가아닌 古代人의自然觀 宇宙觀이나타나고『리즘』이鄕土的이고 固有名詞는 漢文語彙가업다 그러나 三國統一後의新羅는 唐文化를 際限업시 바더드렷다

科擧制度가생기고 孔子廟도세워다 支那의賓貢科에合格하는분도 만허지고 支那의詩客과 唱酬할 崔致遠가튼이도 낫다 이時期를 中心으로하야 歌吐와새음이 發明되며 漢文學習이 퍽容易하게되고 따라서 高麗王朝에이르러서는 漢文學者가 제법輩出하야 高宗一代에는 星月交輝의偉觀을 일우엇까지잇다 그러나아직도 이나라의鄕土傳承의文學에根本的變革을 준것은 아니엿다 支那의文學은 東漢때에 佛敎의輸入을본후 原始信仰인 道敎와 合流해서 그나라文學思想의 底流가되엿다 그는

南

北朝의 文學、唐代의文學 나려가서宋代의文學이 일으러도 마치한가지다 陶潛의『採菊東籬下 悠然見南山』謝靈運의『池塘生春草、園林變鳴禽』의句가 南北朝時代의警句라는것은 그文字의技巧에서가 아니라 그思想이自然스럽다는 것이다 이런 風味를禪味或은 東洋趣味라고해서 稱讚한다 假令日本의『松尾芭蕉』의『古池や蛙とびむ水の音』(낡은못이여 개고리뛰여드는 물소리) 의句가튼것도 그러치만 조선의時調에서도 이런例는 얼마든지 잇다

道

唐代에 가장이風味를 體得한사람은 王維다 王維는詩와畵를모두 잘하기때문에 蘇東坡의評에 王維는 詩속에도畵가잇고 畵속에도 詩가잇다 하엿다 宋나라의詩人에는 이런傾向이 더욱甚하다 東坡의赤壁賦는 老子莊子를換骨脫胎해서된 것이라고까지하며 學者들의 詩集인濂洛風雅는 篇篇이 이런傾向이잇다

邵康節의詩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 이氣分이 곳 芭蕉의 古池投蛙의句와 가튼것이다 조선時調의 大部分은 이러한漢詩를 李朝獨特한詩의形式 時調『三四』『四四』調로담은데 지나지못한다 이것은 小說에잇서서『그로테스크』한 虛構를만들기가 쉽다 支那一代의壯觀이라고할 晋唐小說가운데 그殊勝한傳奇속에서도 妖怪를빼면 아무것도 업다 조선에는모든文物을 支那에서輸入해올적에 이런妖怪도바더드려서 搜神記 博物志가튼것도보고陰陽五行說가튼것까지 바더드렷다 이것은 元明時代의雜劇 詞曲에까지影響하고 조선의이야기책의骨子를 일렷다 이야기책에는 흔히『道士에게 배워서 主人公은工夫하고 靑鳥가案內해서 消息을알고

易

占으로 前途를알고 道術로呼風喚雨하고 妖怪를一掃하고…』等等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大部分 剪燈新話 今古奇觀 世說新語 聊齋志異 等譜의 一層을 講한것가튼 느낌을주는 스토리가 中國式이요 鄕土色이 적다 여기서 專制政治 儒敎政治下의 桎梏的文化가 어떠한性質의것이라는것을 느끼나니 이桎梏에서 버서나서 支那式의 舊套를벗어 쓰고 鄕土文學으로서 價値가잇는 李朝末葉에 歌劇으로서 登場된 며개의 小說『春香』『沈淸』『兎生員』『쨍기―』等等은 우에말한이야기 冊形態와 편달음으로써 貴重하다고 하는것이다

新春文藝一等當選詩

여름산

崔載亨

한나절 靑山은 조올고
구름은 둥 둥 湧出어 간다。
은어새끼 송사리떼 파들거리는 산여울
산새시 사랑처럼 오손도손 情다웟다。
멀구、다래는 寂寂을 담고
이끼앉은 띠구엔 傳說도 업다。
어제 아랫마을 병아리를 채 간 솔개미는
雲峰에 나래를 펏다 저버다。
골짝이 숫물에선 煙氣가 솔 1 솔1 피여오른다。

新春文藝一等當選

素服 (一)

金永壽作　鄭玄雄畵

그럴사하고 봐서 그러지는 몰라도 아닌게 아니라 요새로 부쩍 계집의 태도가 완연히 수상하다。

전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거나 또 받듯게 일브러 물을 데여서 세수를 하거나 뭐 그런 버릇이라고는 통 업섯는데 요즘엔 그럿치안타。 그 빌어먹을 동백기름은 어서 낫는지 볼 머리는 번지르르하고 목아지까지 더커가 지게 분을바르고 게다가 또 그 넓적한 상판에다 어울리지도안케 연지칠을 그것도 요량업시 함부로 해놔서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리 외누리를 하고보아도 흡사히 무슨 망대나 그런것으로 밖에는 뵈이지안헛다。

「아무래두 저년이 바람이 낫서―」

양서방은 지금 마악 저녁상을 바든참이다。시장하니까 부즈런히수깔을 나르지만 속으로는 여간 애가 씨이는 것이 아니다。

계집은 서방이 밧문에서 돌어오니까 그전 가트면 의례 오늘은 그래 얼마나 벌엇소、뭐 이따위 말이 잇섯슬텐데 오늘은 그런 잔소리는 업고 그냥 미리 부뚜막에 채려노하 두엇던 밥상을 서방이 방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뒤미처 디밀더니 밥동을 타악 다더버리고 고만이다。

그리더니 손뚜껑을 여는 소리가 나고 더운물을 푸는것갓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세수다。

양서방은 속이 아무리 상해도 먹을것은 먹고 보자는 주의다。아까 밧문에서 면근이가 잣듯을 불어서 한 오십전 땃다고하며 막걸리나 먹으러 가자고 꺼는바람에 못이긴체하고 겻뒤가서 몃잔 마신것이 아직 다 깨것은 아니지만 그때도 밥은 밥이다 거의 한사발을 다 먹어간다。다 먹어가도록 속에서는 그대로 불이 치미러지만 양서방은 용하게 참는다。

바깨서는 연성 푸우 푸 소리를 처가며 그 양서방이 제일 못마땅해 여기는 계집의 밤세수가 한창이다。

방에서 밥 한사발을 다먹어가도록 계집의 세수는 용이히 끄티 안난다。아마 오늘을 버서부치고 하는듯 절거덕 절거덕 양가슴이며 겨드랑이며 그런곳까지 비누칠을하며 야단울피우는것이 틀림업는것은 소리만 들어봐도 알조다。

그러니까 양서방의 눈은 차차로이 모들띠기가 되어간다。뻣밤이선다。양미간이、재피고 이마빡이 재피고、양서방은 굼켜무엇이 가슴을 치밀자 고만 꼴이 약간난것이다。

『에헴―』

양서방은 패애니 한번 이런 헛기침을 제법 위엄엇게 해본다。그러나 그만것은 별로 효과가 업는것이、계집이 양서방의 이 에헴소리를 채 못들엇는지 혹은 듯고도 모르는체 하는건지 하여간에 곳、

『나、그 수건좀 내주우!』

하는 소리가 아주 태연하게 낫것이다。

『흥。』

양서방은 고만 어이가 업서 처번에는 들엇쳐도 안하고 이러케 코웃음을 첫지만、

『아、얼른!』

하고 재촉을 하는바람에、고만 하고 팔앗다。이것은 양서방이 늘 한탄하는바와 가티 그의 성미가 워낙 든하지가 못한탓일지도 모른다。그러니까 계집이 양서방을 넘보고 함부로 닥드리는것은 당연햇고 그러치만 제까짓년이 얼굴이나 빼안해지 뭐이 잘나서 저러는지 언제든지 한번 단단히 양서방한테 그야말로 엉치가 끈허지도록 혼이 나고야 말것은 누구보다도 양서방 자신이 장담고 잇는터다。

『아、그 경대 우에 업수?』

기어코 계집의 목소리는 조금 더 표독해질수 밧게、

『참―』

양서방은 억지로 마지못해 다시 슈해진다。

그래서 무사히 수건은 바그로 나갓다。 그러치만 마음이 대단히 불안한것은 양서방 혼자다。

(저년이 세수를하고 뭣시 또 그는현데루 가는것이지――)

양서방은 밥상을 조금 웃목으로 밀어노코 마뭐하나를 꺼내여 여물잇는 회로돌을 헤치며 어런 불길한 생각을 해본다 담뱃불이 잘 붓지안는다。

永興公友會
永興教育團

咸鏡南道永興郡德興面昌岩里八拾八番地
東拓鑛業株式會社 永興鑛業所
朝鮮總督府指定産金品位鑑定地金買入所
私書函永興郵便所第十九號

宣興釀造場 趙成龍 韓永俊

宣興面事務所職員一同
順寧面事務所職員一同
橫川面事務所職員一同
長興面事務所職員一同
耀德面事務所職員一同
德興面事務所職員一同

張文星　金鍊珍
崔昌者　金漢奎
禹義洽　朴相義
金元極　張成三

永興郡宣興面龍潭里 有志 金大鏞

無名氏　無名氏
方斗宗　金東仁

順寧永豊水利契 裵永煥 石洛哲
劉河鍾 石命哲

耀德森林保護區 趙元平 吳永龜

橫川森林保護區 職員一同

宣興森林保護區 金周燦

永興郡宣興面 龍神鑛山 鑛主 咸鳳燮

咸鏡線馬場驛前 朝鮮釀酒 穀物貿易 委託販賣 馬場釀造場

咸南永興郡大平市 大興醫院 院長 金鎭國

永興郡宣興面城里 啓礎社林業部 主任 金周百

永興和信連鎖店 主 申澄相 電話四七番 振替京城二七五二五番

永興邑 永興釀造株式會社 電話二〇番

永興邑 南山學院

永興本町 穀物貿易 綿絲布木 郡散賣商 石命哲商店 協成運送店 電話一六番

石南水利契長 金澈榮

咸南永興 直輸出入商 東亞貿易倉庫株式會社

咸鏡線馬場驛前 中華料理 平壤食堂

永興郡順寧面新豊里 朴瓚旭

永興郡仁興面東原里 李達鉉

永興郡長興面鳳陽里 劉瓚鍾

永興郡長興面元山里 張壽福

永興郡宣興面城里 韓國補

咸南永興 司法書士會

和洋菓子 飮料 食料品 咸南永興本町 永興寛一商店 電話六二番

永興邑內 兄弟理髮館 主 趙秉健

咸鏡南道永興郡永興面南山里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永興支店

宣興金融組合

宣興郵便所 所長 金昊建

大坪郵便所 所長 許明雲

永興郡宣興面城里 煙草賣捌人 主事 李炳燮

京城二一、四七四番 咸鏡南道永興郡橫川面大命里 大同商店 金啓善

永興邑內 穀物貿易 朴慶喆

永興郡仁興面龍峰里 製鍊業 金利寬

咸南永興郡耀德市 耀德繁榮會

龍潭里區長 孫東協

龍潭地方振興會長 金奎烈

永興邑內 穀物貿易 金東燁

永興邑內 穀物貿易 徐鍊伯

永興邑內 穀物貿易 文昌洽

永興邑內 穀物貿易 金泰淳

永興郡長興面東里 郡農會評議員 劉載富

永興郡德興面 張秉浩

永興郡順寧面內洞里 金東燁

永興郡宣興面龍潭里 明興學院 設立者 財務 金尙鏞

宣興面龍潭里 明興學院長 金龍燮

明興學院 林應松

永興郡順寧面州南里 石洛貞

永興郡宣興面龍?里 韓寶璉

宣興面協議員 金百鍊

物品販賣 永興木工所 主 ?中?

長興面協議員 金俊楨

永興面新洞里 金銀買入 朴用進

永興郡長興面金波院里 車正麟

永興郡德興面仁興里 養林部長 林南奎

咸南永興郡橫川面大命市 網地 日用百貨 各種衣裳 石油 開城商店 主 薛億東

永興面 ?里 金寬恒

永興郡德興面內洞里 金載鉉

瑞山

瑞山郡
瑞山面事務所
泰安面事務所
海美面事務所
雲山面長尹承秀
貞美面事務所
地谷面事務所
大山面事務所
音岩面事務所
大湖芝面事務所
仁旨面事務所
浮石面事務所
八峯面事務所
高北面事務所
安眠面事務所
近興面事務所
所遠面事務所
梨北面事務所
遠北面事務所
南面事務所
聖淵面事務所

004385

朝鮮生命保險株式會社
瑞山支部長 申恒均
泰安出張所長 朴熙鐸
監督 趙昌國
參事 宋學鉉
同 文福成
參事 柳寅昌、洪珠裕 外三人
社員 羅炳植、賈廷魯 外五人
瑞山代理店 瑞興時計店 李用興、李頊錫
瑞寧代理店 泰安邑內 ○稱木所 金二煥
泰安代理店 和信連鎖店主 文德培
同 專務 文福成
診察醫 瑞山常春醫院長 洪憲裕
瑞山醫院長 公醫 金鉉圭
瑞山東亞醫院長 李龍基
泰安至誠醫院長 公醫 鄭夏鎔

泰安市 李澤柱 自轉車店
同 松岩里 韓應敎 明珪泰
同 同 韓範錫 白萬基
同 同 韓箕洙 金季濟
同 島內里 賈正魯 池興雲
同 山後里 金世元 李炳和
同 梨北面內里 安相喆 李會根
同 [illegible] 李庸權 李昌俊

瑞山郡廳

瑞山邑內 洋品百貨 洋服調進 金子屋

瑞山邑內 穀物貿易 東一精米所 崔漢鏞

瑞山 朝鮮料理元祖 明月館

忠南瑞山邑內 朝鮮自動車運輸、運送事業 貨物自動車業 瑞山運輸社 社長 韓東璧

富春燒酒 白馬藥酒 瑞山釀造場 電話二十五番

洋品百貨 綢緞布木 泰安和信連鎖店 幹部 文德培 同 李鍾轍 同 文福成

忠南瑞山郡 海美造酒場

瑞山郡 雲山消防組 組頭 有志 尹命秀 副組頭 澤田四右エ門 小頭 李起俊 同 李範春 同 金連泰

忠南瑞山邑 朝鮮料理元祖 客室增設 瑞山館 主 金生植 藝妓一同

瑞山邑內 朝鮮、和洋 支那料理 君乃屋 外藝妓一同

忠南泰安市 陶磁器 和洋雜貨 泰安商會 主 朴東杉

安眠面承彦里 有志 朴正?

梨北面馬山里 有志 賈秉玉

瑞山郡高北面南井里 有志 崔九鏞

瑞山面竹城里 柳光秀

瑞山郡所遠面所?里 所遠釀造場 李圭璜

瑞山郡梨北面浦地里 有志 李柱弼

忠南泰安市 泰安釀造場

瑞山郡泰安面 南門里振興會

瑞山邑內 穀物貿易 精米業 朴采和商店

東一銀行 瑞山出張所

瑞山金融組合
瑞寧金融組合

瑞山郵便所長 川瀨渡

瑞山 迎春カフェー 主 李錫求 女給一同

瑞山郡內 公立學校長團

瑞山面東門里 司法書士 田泳爽 朝鮮日報社瑞山支局顧問

瑞山邑內 ㊐瑞泰運送部

瑞山邑內 瑞山印刷所 朝鮮日報社瑞山支局出 朴友性

瑞山邑內 貿易 新昌堂乾材局 金鼎濟

瑞山郡安興港 安興漁業組合 職員一同

泰安面平川里 明珪善 同 明珪喆

瑞山郡 安眠 面協議員一同

瑞山邑內 高級洋服調進 ラビー洋服店

瑞山面長?里 有志 鄭在源

泰安市 自轉車 寶具一切 河生龍商店

高北面有志 崔辰鏞

近興面?金里 崔龜淵

所遠面?里 鄭明好

梨北面?里 趙喆鎬

所遠面?組合 理事 鞠聖煥

泰安面 東門里二區振興會

泰安面 東門里一區振興會

泰安面上玉里 華林農場

瑞山邑內 魚物菓子 沈萬興商店

瑞山邑內 尹聖玉商店

瑞山郡?里 雲山釀造場

瑞山邑內 司法書士 兪壽孫

瑞山面東門里 尹道弘

瑞山郡大湖芝面松田里 金正煥

海美金澤商店

?面上?里 有志 田溶根

瑞山邑內 朝鮮麵子瑞山分工場

瑞山邑內 共榮自轉車店 申重湜

大湖芝面 金鍾冕

八峰面 具基龍

海美 金起寅

天宜市 南昌商店

瑞山邑內 綢緞布木 李廣龍商店

瑞山邑內 瑞山金物店 邊貞潤

瑞山面東門里 金相演

海美邑 美鮮洋服店

近興面水?里 崔昌淵

近興面?金里 崔好宗

近興面?新里 李順龍

近興面斗也里 李長鎭

遠北面?里 趙斑鎬

所遠面新德里 蔡正歎

梨北面內里 安癸昌

泰安邑 南廷台

梨北面?山里 趙泰鎬

泰安司法書士 李華鶴

安興酒造場 洪淳奉

永登浦

各種植物性搾油及脫脂糠胡麻粕肥料製造 朝鮮精糠製油工業所 京城永登浦町一二七七 電話永登浦五一番

中央保育學校 電話龍山一六九〇番

京城府敦化町七一番地ノ四號 土木請負 尹宙榮 電話光化門二一七二番

永登浦町四二ノ三六 太平鐵工所支店 趙浚甲

安養 三光精米所 電話(安)二〇

朝鮮日報安養分局 裵貞燮

安養釀造場 尹敬燮

安養 産婦人科 平安醫院

安養驛前 平安醫院漢藥部

宣川

有名賣藥卸商
漢藥貿易及調製
藥種問屋 回春藥房 桂仁培
平北宣川邑南山町 振替京城二七七二六番

宣川邑 龜宣鑛山事務所 趙相基

宣川邑 東新金山事務所 金相鳳

宣川邑 三省醫院 院長 曺仁奎 電話六二番

朝鮮平北宣川郡宣川邑明治町
諸雜貨 メリヤス 食料品 卸商 ㊎金成商會 職員一同
電話一三四番 電話一〇八番 電略（キン）又八（ク） 私書函宣川局二七號 倉庫係

東興洋襪工場 電話一三四番

宣川邑本町 中央旅館 主 朴炳禮

東林金融組合 組合長 田洛浩

宣川邑 以文軒

宣川邑 田文信

宣川邑 宇田豊勝 電話一〇五番

宣川邑 崔治連

宣川邑 曺明根 電話六九番

宣川邑 張一春

宣川郡郡山面 金潤泰

宣川邑內 朝鮮生命支部

宣川郡南面石和洞 李永典

宣川邑 劉天德

朝鮮平北宣川邑旭町 財團法人 明信學校 電話一〇一番

宣川邑 三省醫院齒科部 玉文振

宣川邑

宣川警察署

宣川稅務署 職員一同

宣川郵便局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新義州支店宣川營業所 永原又次

宣川邑 崔允涉

宣川邑 朴龍雲

宣川邑 林京範

宣川邑 申光鉉

金廼興

宣川邑 金貞均 電話一二九番

宣川邑 喪中欠禮 崔泰日 電話一五九番

宣川邑 鑛業 梁武相 電話四八番

宣川邑 鑛業 李漢錫

宣川邑 白亨德

宣川邑 朴壽福

無名氏

片倉生命宣川出張所 金順模 金在翼 韓碩豊 電話一二二番

平北宣川 朝鮮總督指定 信聖學校

財團法人 宣川會館
宣川會館圖書縱覽所
宣川幼稚園
宣川中學講習所
宣川商業實修學校

朝鮮平北宣川 私立保聖女學校

宣川邑 仁濟病院 電話五九番

宣川明治町 新安齒科醫院 朱道均 電話二一三番
（이로써年賀를代합니다）

宣川邑 桂林藥局 桂月華 電話一三六番

宣川郡

國一館 職員 朴春心 丁明花 姜山月 朴花仙 張玉瓊 朴聖淑

宣川邑 綿絲布・木 龍洋商會 魯允烈 電話六八番

宣川本町 ● 盧德商會 取引銀行 朝鮮殖産銀行宣川支店

東一商會 文興善 本店 電話一五二番 支店 電話五三番

朝鮮總督府發行教科書指定販賣 圖書・文具 教育・指圖 大英書院 金貞河 電話一三〇番

朝鮮日報寫眞班 ひかり寫眞館 桂春根 電話一三五番

平安北道宣川驛前 火藥・鑛山用品商 谷口合資會社 代表者 谷口岩吉 支配人 日沖政之助

自動式洋襪靴下タオル織造 ㊎ 大東商會 魯淵豊 電話二〇六番 振替京城一〇六五二番

宣川邑黃金町 海陸物産 貿易委託 金德源商店 電話二一七番 電略（トク）又八（ヨ）

宣川邑本町 食料專門 東洋商會 電話一〇二番

朝鮮映畫商會 直營 宣川劇場 電話一〇八番

宣川驛前 鑛山機械 製作專門 平安鐵工所 電話一四四番

宣川邑 國一館 電話一七〇番

宣川邑榮町 昭和機械商會

宣川邑本町 大川商店 梁仲尙

京義線路下驛前 三合精米所

宣川驛前 宣興旅館 電話三六番

宣川邑 宣川酒造株式會社 社長 李泳贇 專務 吳鏞源 取締役 金伯寅

宣川邑 碧城樓 電話一五七番

碧城樓藝妓一同

宣川邑 琴松館 電話六三番

琴松館 藝妓 金蓮紅 金花心 朴淳實 李山月 趙英山 崔英月 金桃花

宣川邑 黃海食道園 主 閔龍女

宣川金融組合

宣川邑 萬貨商店 魯炳爀

宣川邑明治町 洋服專門 李枝賢商店 電話二〇七番 振替京城一〇一九九番

宣川邑黃金町 材木商 森山商會 洪文聖

精白米・打綿業 地金銀買入商 信益商會 金益龍

선천읍 해동상회 電話一四二番

平安旣成服店 宣川邑本町 取次電話一五八番

宣川邑 周旋業 李亨常

鮮一洋服店 康玉齡

宣川邑內 森盛商會 李錫祚

宣川邑榮町 丸計交計店宅扱取次店 ㊀丸一運輸社 電話一〇八番

宣川邑 三信商會 電話一六六番

半田商店 李 電話一九番

宣川支局 金基輔 桂河榮 金鳳洛
이로써年賀를代하오니恩諒하시옵소서

濟州

濟州島翰林面瓮浦里 濟州島澱粉工場 足立孝一

朝鮮全南濟州島安德面和順港 濟州澱粉製造工場 工場主 和田芳松 工場主任 張行圭

濟州島邑內 土木建築請負業 文孝星

全南道會議員 康性益

濟州邑內元町 貿易商 朴宗實商店 電話二十八番

濟州島邑內 濟州島産業株式會社

濟州島邑內 醫學士 車南守 車南醫院

濟州島邑內 厚生醫院 醫師 吳昌昕

濟州邑事務所

濟州島邑內 姜主燦機械店
自給肥料の素 アヅファーム 濟州出張所 ヤンマーヂーゼルエンヂン 濟州特約店 農工業用諸機械類 諸機械油附屬品一式

濟州島表善浦 諸請負業 有正組 代表 羅有鳳

濟州邑內元町 濟州商事株式會社

全南濟州島邑內 濟州通運株式會社

濟州島漁業組合

濟州島廳 濟州島農會

濟州島邑內 濟州島興業株式會社 職員一同

濟州邑內 全南道會議員 金根蓍

濟州邑內 濁酒專賣 濟一釀酒場 洪南錫

濟州邑內本町 雜貨卸商 合資會社 伴商店 代表社員 角 電話十一

社長 濟州邑內一徒里 南鮮商事株式會社 濟州邑會議員 濟州商工會副會長 金瀛熙

濟州邑內 土木建築請負業 安部長七

濟州島涯月港 光濟醫院 醫師 張

宣川邑中央通 中央飯店

宣川邑中央通 中央理髮館

宣川驛前 正和旅館 電話一六二番

濟州島涯月里 涯月面事務所 面長 金益俊 外職員一同

濟州島翰林里 翰林面事務所 面長 金昶宇 外職員一同

濟州島中文里 中文面事務所 面長 李斗白 外職員一同

濟州島金寧里 金寧金融組合 理事 具玄祐

濟州島朝天里 朝天面事務所 面長 金汝熙

濟州島南元里 南元面共同牧場組合聯合會

濟州島翰林里 翰林書堂組合 會長 金日華

濟州島表善里 表善面事務所 面長 宋仁鎬 外職員一同

濟州島城山浦 城山面事務所 面長 金鶴 外職員一同

濟州島舊左里 舊左面事務所 面長 全仁弘 外職員一同

濟州島涯月港 罐詰業 李正律

濟州島涯月港 月露酒釀造所 康百熙 金在建 李鎬枝

濟州島翰林港 李時烱回漕店

濟州島翰林港 翰林材木商會 朴文化 金大元

濟州島翰林港 翰林濁酒工場 金大元

濟州島翰林港 株式會社 高丁鳳回漕部

濟州島翰林港 石本罐詰工場

濟州島翰林港 高級料理 日乃出亭 主 高實生

濟州島高山港 貿易商 玄榮奎商店

濟州島高山港 三省醫院 醫師 左任瑢

濟州島西歸浦 協昌商會 金任吉

濟州島西歸浦 普昌醫院 醫師 邊太柏

濟州島西歸浦 太田罐詰分工場

濟州島西歸浦 李正八商店 振替九二九九番

濟州島西歸浦 朝鮮料理店

濟州島西歸浦 土木請負業 丸岡七郞

濟州島西歸浦 客室完備 親切叮嚀 現代屋

濟州島西歸浦 三共酒造工場

濟州島西歸浦 客室完備 親切叮嚀 小島旅館

濟州島南元面 弘濟醫院 醫師 張時

濟州島表善里 宋權殷

濟州島城山浦 罐詰業 玄吉弘

濟州島舊左面 私立下道小學校 私立中央小學校

濟州島金寧港 濟州名產品 ヒジキ鹿尾草 製造工場 主 金萬石

濟州邑 濟州護讓販賣組合 組合長 高永興

濟州島山地港 濟州酒造株式會社 黃舜河

濟州島旭町 濟州木材株式會社 代表取締役 文在萬

濟州邑一徒里 永田千代松

全羅南道立濟州醫院

濟州邑三徒里 貝釦業 高舜河

濟州邑內 銘酒 サスガ 濟州島一手販賣 崔龍植商會

濟州邑元町 康 自轉車商店

濟州邑內 昭和運送株式會社

濟州邑本町 甲子屋帽子店

濟州島邑內 濟州産業組合

濟州邑內本町 洋品百貨 三和商店

濟州邑健入里 濟州販賣所 內鮮商店

濟州島山地港 株式會社 高海運商會

濟州邑內 和洋料理 支那料理 中央食堂 電話六九番

濟州邑內山地港 ミナト食堂

濟州邑內 綿布・足袋 布木卸商 李事和商店

濟州邑內 中央醫院

濟州邑內 濟州島天主教堂

濟州島涯月港 製造所 主 金文

濟州島涯月港 醫師 光濟醫院

濟州島涯月港 日新商店 主 李洋英

濟州島涯月港 涯月金融組合

濟州島翰林港 翰林金融組合

濟州島翰林港 醫院 醫師 金

濟州島翰林港 和洋雜貨 金兄弟商會

濟州島翰林面瓮浦里 明月燒酎醸造場

濟州島高山港 郵便所 所長 姜己

濟州島高山港 綿布・雜貨 左頭實商店

濟州島高山港 任君輔商店

濟州島高山港 和洋雜貨 皮物・輸出 朴有龍商店

濟州島摹瑟浦 精米業 貿易商 丁秀元

濟州島摹瑟浦 醫院 醫師 文達

濟州島摹瑟浦 郵便所 所長 梁山

濟州島摹瑟浦 米穀・食料品 果物 衣本商店

濟州島摹瑟浦 摹瑟浦金融組合

濟州島摹瑟浦 大靜面事務所 面長 金大有

濟州島西歸浦 濟州島産業組合西歸出張所

濟州島西歸浦 康成讓

濟州島西歸浦 西歸浦金融組合

濟州島西歸浦 高級料理 日亭

濟州島西歸浦 尼崎汽船株式會社 五回漕店

濟州島鳥美里 保生醫院 醫師 玄

濟州島表善里 和洋雜貨商 中立

濟州島城山浦 和洋雜貨 三ッ山商店

濟州島城山浦 城山浦金融組合

濟州島城山浦 材木商 金允鎔

濟州島城山浦 漁業 玄貳吉

濟州島城山浦 金成殷商店 振替釜山

濟州島細花里 米穀食料品 雜貨漁船具 文賢周商店

濟州島細花港 金一 彥房

濟州島細花港 菓子食料品卸商 主 吳君 大東商店

濟州島細花港 金昌五 回漕部

濟州島細花港 朝日旅館 主 文道吉

濟州島下道里 貝釦工場

濟州島細花港 醸造業 朴仁植

濟州島金寧港 酒造場

間島

龍井街 シンガー裁縫機械會社 主任 金機憲

司法部大臣認許 訴訟代理人 金演君 法律事務所 間島省龍井街大通路

間島省龍井街 朝鮮料理 東洋館 電話四五一番

間島省龍井街平安路 東洋牛皮貿易商會 東洋旅館 主 朴鳳熙 電話三二一番

間島省龍井 荷主運輸株式會社

間島省龍井街大通路 光德洋靴店

工場地帶區劃整理 今春에着工決定

街路、鐵道引込、防風林도造成 咸興都計區域漸擴大

【咸南支社發】함흥부에서는 작년부터 육백여만원의 거액을드려서 도시계획을실시하야 건축지조성 제일기사업의 구획정리공사를하야오던바 최근 그계획에 들지안헛든 사포정(沙浦町) 용흥정(龍興町)등의 공장지구에 대소공장이 유속설치확정되는 현세에비치어서 다시 이지구의구획정리를 하기로되엿다 이지구는 제사구로 사포정 일이삼정목 용흥정 회상정(會上町)의일부로서 그면적은 이백팔십사만 삼천평방미돌로서 망장 가도(街路)등을개설한다고하며 철도(鐵道)선도 드려오도록한다 그리고 구역내인 성천강(城川江)호련천(湖蓮川)의 두강안에 방풍림(防風林)을 조성한다고한다

이공사는 금년봄부터 곳착수하야 십육년도말까지 준공할터인데 시국관계로기채는 할수업고 부담금으로 지변할것을 지난달이십칠일부로 인가가나렷다

公金橫領官吏 高原驛에서逮捕

【咸南支社發】공금횡령한 만주국관리가 고원역(高原)부근에서 체포되야압송되얏다 ─ 장백현장백부(長白府)현공서(縣公署)에근무하고잇는 기경신(己景臣)(二三)은 지난이십륙일 오전열시쯤 근무하는관청의 공금 이백여원을가지고 혜산진(惠山鎭)에 건너와서 이십팔일 오전일곱시차로도주하얏다 이급보를바든 혜산진경찰서에서는 즉시각철도연선의 경찰서에 수배하얏는데 이십구일 남행 제삼백륙호열차에타고잇는것을 고원경찰서원이 체포하얏다 피의자는 삼십일일오후 장백현경무국에서 고원경찰서에 출장하야 압송하야갓다

……尋常小學校朴淑(?)선생 근속십주년 기념식을 동교학부형회의 주최로 지난삼일 오후한시에 동교교실에서 학부형회회장 이종교(李鍾敎)씨 사회로 학부형 아동내빈등 다수참집리에 성대히식을거행하고 기념품까지증정하엿다고한다

國語講習會에 石炭을寄附

【沈村】봉산군사인면 거동리(舍人面居東里)에잇는 봉산의원장 정낙용(鄭洛容)씨는 동리에잇는사인공립소학교에서 금번동한기를리용하여 배호고저하되 배울길이업는 남녀아동백여명을 모아 국어강습회를 개최하엿는데 연료가 부족하다는말을듯고 자진하여 석탄한톤을 기부하엿다는데 일반은 씨의 특지를감사히 생각한다고한다

銃後道民의赤誠 獻金總額六十餘萬圓

昨年中에披瀝한全南道民誠意

【全南支社發】지나사변 발발이래 전남도에서는 국사후원 연맹을통하야 각종헌납 위문품을모집 또는 출정군인 가족전상군인보호등의 만전을 기하고잇섯는데 소화십삼년중의 각종헌금액은 이십일만일천여원이며 해군기금 각종병기 헌납금액 사십사만사천여원과 군사후원 연맹의 기부금 칠만칠천여원과 국방헌금을 합하면 총액실로 륙십이만 팔천여원의 거액에 달하고 그외에 위문주머니등 유만여개에 달하고잇서 이백오십만 도민의총후 적성을여실히보이고 잇다한다

魔의川內里送炭線 交通上에큰威脅

住民會社의善處要望

【元山】송탄선이 도초소학교(都草小學校)로관통하게되여 아동통학상 대단위험을느끼게되는그 학교학부형측에서는 그노선개회의 변경을 적극요구하여 큰말썽을 이르키고잇는 조선무연탄회사(朝鮮無煙炭會社)문천(文川)탄광 천내리(川內里)송탄선에대하여는 요지음 또한 일반의비난을 사고잇다 즉그송탄선은 설치이래 지금까지 벌서여러번교통사고를내엿다는바 특히작년에 어린아이늑살사건과 천내리소학교수학권행단의 기합등은 가장일반의 기억에서 사러지지안는 참변이엿다 요지음 동절을 당하여 선로동결로 인하여 레일이 노면에 부푸러오르게되엿스므로 전복될위험성이 극히만흐며 또한지내철도경로에는 간시인을 두지안하서 일반시민의교통상 위험을느끼게하고잇다는바 이에 시민측은 회사당국에 수차선처를 요구하엿스나 이에응하는태도가 보이지안허 일반은 매우 우려하게되엿는데 금후회사의태도가 주목된다고한다

非常警戒中에 意外犯人捕獲

【平南支社發】기보허의강도고발로 비상선을느리고잇는중에 의외의 범인이 걸려드럿다 ─ 즉양덕군오전(?)에서지오십몃 남문전(南門前)……

大田藥令市開市

一月十日부터月餘間

【忠南支社發】대전약령시는 창시이래 당국의지도와 업자들의 협력으로 개시기간 약일개월이란 단시일에도불구하고 매상고는 사오십만원의거액에 달하는 호성적을 보이엿다 그런데 근년에는전시관계로 지나산약초수입의 감소로인하야 영향이 업지아니하겟지만 예년에의하야 당국의 성원하에 오는십일부터 개시하야 구정월말일까지 개시하리라는데 벌서부터 북으로함흥 평양남으로 대구 부산 전주 목포등지로부터 약재가속속 운집하는중이므로 예년에비하야 별조색이업스리라고 예상하고잇다

古德尋常小學校 朴訓導勤續紀念式

【古邑】평북 정주군 고덕면고덕심상소학교 박숙홍(古德面古……

寄生虫無料檢查

【江陵】신춘의낭보 ─ 조선인총인구의 약팔십「퍼센트」가 기생충보유자라고 일컷는바 의사 정순홍(鄭順弘)씨는 금반강릉에서 명주의원(溟州醫院)을 인수개업케됨에따라 오는칠일부터닷새동안은 일반대중에게 개업피로를겸해 무료진찰 협매설비검사시행 약가실비제공등을 베풀겟다고하며 일면일할당한동안은 전기의실정에비치 일반에게 기생충의무료검사를 해준다는바 일반은무이 이용하기를바란다고한다

產金增產萬全策

忠北道서業者招致協議

【忠北支社發】충북도당국에서는 국책에 순응하야 산금계획에잇서 각가지 방도를강구하야 산금증산에 노력하고 잇는터인데 작반충북도산금협회를 조직하고 다시 이어 청주금광업조합을조직한다음 청주군남이면외천리(南二面外川里)근방에 이십여만원을드려 공동제련소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여 방금준비중이라함은 기보한바어니와 이러한 설비와 각종책에 의하야 본도지하자원개발에 일층노력하기로되엿다 도당국에서는 다시 신년초초 오는십삼일 도청제일회의실에서 도내중요금산업자 이십여명을 초치하야 산금계획실시에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금증산에 만전을 다하고잇다한다

原州邑極貧者에 同情米를分配

【原州】원주읍에서는 매년연말에 가난에뿌리에띄워 시에도 굴러서피하는 아주극빈민에게 동정미를조금씩 분급하야 설날만이라도 기근을면하도록하여 금년에도 역시이구제책으로 원주읍장이하 유지원이 읍내유지자를 방문하야 얻어진 의연금 흡은백미를 기부받든것이 백미열두가마니나되엿다 그래서 극빈자오십호에 각각식구수에의하야 이를분급하야 구제를받는그들은 읍장의자비한동정심에 눈물겨워하며 감사하야마지안는다고한다

師範校基金으로 一萬圓自進喜捨

晉州鄭鍾根氏의特志

【晉州】진주에 도립고등녀학교와 관립사범학교를 설치코저 중등학교정비기성회(中學校設備期成會)가성립되여 관민일치하야 그목적달성에 매진하고잇다함은 본보에 누보한바이어니와 조선인측에서는 십오만원을 지출키로결정되여 그동안 기성회측에서는 진용을 정돈하여가지고 신춘부터 활동을 개시하게된바 이소식을 들은 진주내동면 귀곡리(晉州奈洞面貴谷里)에잇는 정종근(鄭鍾根)씨는 자진하야 사범학교설립을 위하야 일만원을 진주사범학교기성회에 희사한다는뜻을 지난일일 기성회장에게 언명하엿다는바 이소식을 들은 진주사회에서는 씨의 금번쾌거에 대하야 칭송이자자하다 씨는 진주교육계와 사회사업에 큰공적을 남기고 작년에 작고한 정태석(鄭泰錫)씨의장남으로 일즉이 동경조도전대학을 마치고 청무성(?)에 잇다가 현재 충북부국에 근무중인 전도유망한청년으로 선고(先考)의유지를 이어서 진주의 교육사업을위하야 물심양방면으로만흔 힘을쓰리라고 일반의 기대가크다한다

崔海集氏의特志

【高城】고성읍내에 가장큰 배회접주인 최해집(崔海集)씨는 회정의하나로 이름이높흔 금강전번주공한 기독교감리회 고성……

清州商業校擴充

新學期에增級키로 對道當局諒解成立

【忠北支社發】청주상업학교(清州商業學校)는 지금으로부터 오년전 청주읍유지사정으로 도회의 만족한결의에 의하야 청주사회에 잇는바이나 한학년의 고조원 김원근(金元根)씨의 과거로 오늘날의 청주상업학교로 원군이라 할만한 현재의학급으로써는 도저히 입학지원자를 수용할수업서 일반의 유감이 만헛든바 이에대하야 김원근씨는 금년도부터 증급을 계획하여 도당국에 교섭중이든바 이번에 도당국의 양해를 엇게되엿다는데 청주사회에서는 씨의 특지를 감사하고잇다한다

實風里의 敬老大會

【……】……

黃海線의廣軌化는 戰時下에더욱緊迫

兵站基地使命遂行에큰影響

出入貨物은 모두 인천 진남포등의 지정무역항을 경저드러오고나가는 공연한 중개(中繼)과정을밟게되여 자연 운임(運賃)이 빗사게되며 수출입에관한특허(特許)를 어드자면도……

그런데 현재 해주항은 아직 무역항으로서의 자격을 가추지못하고 대내지및 연안무역(沿岸貿易)의영역을 해탈치못하엿기 때문에 이에따르는불리와불편한점이 실로크다. 즉 수출입화물(輸……)은 다매의특허수수료를 지불하게되며 더욱 이취급에의한 선박이라도 출입할때마다 특허수속을하여야되는 번잡한 계단이노여잇다.

그밧게도 보세창고급 특수보세공장(保稅倉庫及特殊保稅工場)등에의한 금융과면세(免稅)의편의도업스며 특히 지정무역항이못되기때문에 외국선의 출입은금지되고 개항법(開港法)에 의하야 그때마다 원을대신의허가를맛해야만 되는 까다러운 수속을요하야 대외무역의 발전을저해하는만큼 공장유치에도 조치를 보면 황해를 격해서 지나에대하야 최단거리에 노여잇스며 서조선 오직하나의 부동항(不凍港)으로서 배후에 풍부한자원을 가지고 잇슬뿐더러 가까운 평양의 대공업도시와 인접하야 그생산품자의 복지진출항으로 못한영향이 잇슬뿐더러 해주항이 지정무역항으로서 승격하는 날에는 이런 모든 폐해는 제거될뿐아니라 무역액은 전에업는 획기적약진을보혀 수출입예상액이 일년에 현재의배이상인 천오백만원에 달하리라한다. 더욱 해주항은 지리적으로 소위 황해루─트로서 장차 만포선(滿浦線)의 개통에따라 중부만주의 물자를 한반도에 환전하는 종단항(終端港)으로서 서조선여러항구중에 가장 우위에잇다. 더욱 축항의완성급 철도의광궤화에의하야 해(海)수(水)륙로(陸路)의 최요충에 당하여잇는터로 이항구의 대지혼은 대만무역상의지위는 실로 중요하기 비할데업는것이니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 산업입국의 황해도의 융감스러운 약진보이며 그 해주의 비약적 「도약」인해주항의 신년도에 무역항으로서의승격을꾀하야 이항구의 자연의성능발휘에 유감이업서야할것이다.

黃海線廣軌化問題

풍부한농산물과 무진장의 지하자원개발에잇어서 지장이되어잇는 조철황해선의 광궤화문제는 오래전부터의 현안으로서 이는 그실현의기운이농후한터로 그실현은 시간문제로 남어잇거니와 최근 산업문화가 놀랍게약진하는 우리도의 실정에비치어 그실현은 신년도의긴급과제가 아닐수업다 지금으로부터 칠년전인 소화칠년 조철황해선이 완성된이래 황해도의 산업문화는 퍽으나 촉진되여 백육십만도민이 바든혜택은 실로 크다하지안흘수업다 그러나 최근 황해도의산업계는 그어느부문을 물론하고 약진에 또약진을 거듭하는중에 특히이번의지나사변을 모멘트로하야 국책상 조선이병참기지(兵站基地)로서의 중요성을 부르짓는이때에잇서 이사명의일단을 걸머지고 농업으로 공업으로 수산업등으로 전면적분야에걸처서 대활약을보히는터인데 현재의 황해선은 조철협궤선(狹軌線)으로되고잇는 조철로 교통운수상 지장이적지안타 즉 조선세멘트회사의 해주공장과 조선화약회사의 해주공장등에서는 그원료와및제품(製品)수송상에도 이미 적지안흔 곤란을맛보고잇는터인데 중외광업의 공장이 설치되여 조업을개시하는날에는 그들대공장과 기타의대공장의 제품의수송만도 큰문제가될것이다 먼저도 말하엿거니와 소화유년당시에 무역액이 불과삼백이십여만원밧게 안되던 해주항이 소화십삼년에드러와서는 대비약적 약진을보혀 이천삼백이십여만원이란놀라운수세에비하야 눈부시게 약진하엿고 해주항의 제이기축항사업이완성되는날에는 눈부시는 약진을거듭할것이 예측되며 다시 그배후의만주진선의 완성과함께 그종단구역항으로서의 중요사명이부여되여잇는점으로보아 황해선의광궤화의 개축은 긴급한당면의 과제가아닐수업다 그리하야 관계지방당국으로서는 백륙십만도민은 오래전부터 조철황해선을 국철(國鐵)에 매수시켜 광궤로개축하야 수송력의 약점을 극복하고 물자수송상의 만전을기하야 산업황해의개발과 도세진전에 대처하라는소망은 조철황해선의광궤화운동이 이르켜 총독부당국에 진정을 거듭하기에 당국으로서도 예산에까지 요구되엿던것이나 이는 아직 그실현은 시간문제라 할것이나 이는 산업황해의 개발과 도세발전상 중대문제인만큼 다시 한우봉을 이르켜 신년도에는 기필코 실현하여야할것이다(계속)

(海州特派員 安德根記)

濟州島酒精工場

山地에設置說有力 交通工業用水關係로

【全南支社發】오래동안 제주도에잇서서 공장지대로서의 교통 ……물론 전도적으로 무수"알콜"공장을 제주도에 설치하기를 대망하여잇든바 예정대로 조사중이던바 제주읍산지(濟州邑山地)부근이 가장적당하다는설이 유력하다고한다

七日元山에서 "스키"大會開催

【元山】요지음 겨울"스키"…… 다리가얼어서 하얼도는 추수해비기에는 충행할수업다는것이다

箭灘江架橋運動

文川高原兩郡民陳情

【咸南支社發】고원(高原)과 문천(文川)의양군을 연락하는 전탄강(箭灘江)에 다리를 노아달라는것은 벌서부터의 요구로 …… 지난번합에도 양군민이 진정서를 만들고서 대표로 그들이 진정하는이다

社告

間島支社
位置 間島省延吉街
設置 昭和十四年一月一日付
支社長 金熙一 右新任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社를設置하얏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羅州支局
位置 全南羅州邑內
變更 昭和十四年一月一日付
支局長 李恒發 右新任
支局長 李會衡 右解任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安邊支局
位置 咸南安邊郡安邊面石橋里
變更 昭和十四年一月一日
支局長 黃相律 右新任
支局長 申東爀 右解任

長項支局
位置 忠南長項邑內
變更 昭和十四年一月一日
支局長 韓重錫 右新任
支局長 劉正烈 右解任

裡里支局
位置 全北裡里邑內
變更 昭和十四年一月一日
支局長 朴長燁 右新任
支局長 全炳棕 右解任

花臺支局
位置 明川郡花臺市
變更 昭和十四年一月一日
支局長 金一權 右新任
支局長 李德在 右解任

亂石山分局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位置 滿洲連京線亂石山驛西沙子中
設置 昭和十四年一月一日
分局長 金瑞龍 右新任

京城府西大門町一ノ八六 황포고무京東總販賣部 繊維綿布洋品雜貨商 東和商會 尹大學

海南 海南海里公立尋常小學校 黃山公立尋常小學校 達山公立尋常小學校 北平公立尋常小學校 右水營公立尋常小學校 梨津公立尋常小學校 星津公立尋常小學校 玉泉公立尋常小學校 馬山公立尋常小學校 山二公立尋常小學校 松旨山亭公立尋常小學校 花源公立尋常小學校 花山公立尋常小學校 三山公立尋常小學校

海南警察署職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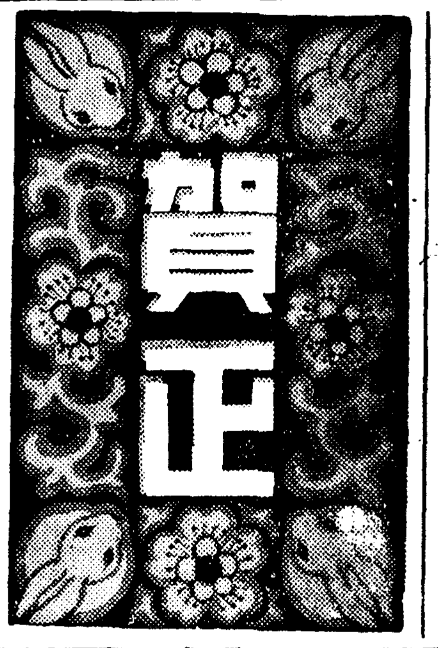
海南郡海南面海里 道會議員 閔泳旭

海南郡松旨面美也里 有志 朴鏞九

004386

海南郡三山面大興寺 住持 朴暎濊 職員一同

賀正



海南郡松旨面松湖里 朴門中 朴漢律 朴丁玉 朴順玉

海南郡黃山面南利里 黃山釀造場 主 朴台炷

海南郡廳 職員一同

海南郡松旨面 酒造場 主 尹在濊

海南邑內 大興自動車株式會社

海南郡松旨面事務所 職員一同

宰洞農場精米所 主 朴南洙

海南郡海南面本町 金陵自轉車店 蓄音機販賣修繕 主 金淸玉

海南郡山二面 日光農場 日光精米所 主 千光杓

海南郡門內面石橋里 前面長 金在坤

海南郡花山面 有志 金鶴伊

海南郡松旨面松湖里 有志 金喜胄

海南郡海南面南川里 有志 千瑩杓

海南郡縣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海南郡花山面事務所 職員一同

海南郡縣山面 有志 尹亮夏

海南郡海南面南川里 道會議員 金奎宣

海南郡三山面 職員一同

海南郡松旨市 南興商店 主 金維龍

海南郡花山面海昇里 有志 劉采鍾

海南郡三山面 有志 尹興浩

任實

江津酒造場 吳順洙

任實印刷所 主 姜達秀

高野旅館 みどり屋

任實 主 …… 洪蘭(?)

朝鮮全北任實郡邑內 主 金…… 會

任實 朴信友商店

料理店 任實 大黑屋

任實金融組合 理事 佐藤巽

任實警察署 職員一同

館村金融組合 理事 金昌榮

任實文化洋服店 地方部 晉成欽

青雄面事務所 職員一同

葛潭產業組合 理事 金英斗

任實醫院 公醫 金恩昌

德峙面事務所 職員一同

江津面事務所 職員一同

任實郡廳 職員一同

任實郡 初等學校

同協會 晉集鍾

平壤

平壤府橋口町八二 正昌護謨工業所 電話二九四七

平壤府南門町六六 江南齒科醫院 院長 李鎬坤 ●×光線 ●紫外光線 ●赤外光線 每日診查 電話四九二七番

平南大同郡龍山面下里 彰德尋常小學校

平壤府大察里一六三番地 平壤聯合基督病院

平壤府新陽里一八二ノ四 平壤自動車工業株式會社

平壤府上水口里 綿絲布 毛織物 繡品 主 金山商會 金俊明

平壤府景昌里八五 平壤盲啞學院 電話四七五七番(呼) 振替京城一八一〇六番

平壤府新陽里一五〇 各種圖書 一般印刷 紀新社 電話二三三三番 振替京城一六八八〇番

平壤 借樂部

中和

中和郡穀物商組合

中和三日會

金明商店 朝鮮中和郡中和邑 電話八番 振替京城三六八二番 電略(キン)文八(?)

穀物貿易 玉山商會 代表者 玉昇彬 朝鮮京義線中和驛前 電話(長)二九番 發信電略 タマ 受電略 チウワタマヤマセウカイ

善山

善山十五日會

龜尾酒造場 高牙酒造場 安谷酒造場 玉城酒造場 舞乙酒造場 玉冠酒造場

朴喜穆

京釜線龜尾驛前 荷主運送 加盟店電話番

大阪本學寫眞館

李忠基

落花生商 朴榮洙商店

古物商 金鶴述

株式會社慶北倉庫 金華 洪學 趙炳善

元坪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慶北龜尾市場 百貨店 龜尾和信連鎖 金惠煥

善山 道議員 朴基元

慶北善山郡善山面完田洞 九〇番地ノ二 善山藥酒株式會社

海平市場 三九ノ十番地 雜貨 布木 吊物 貿易 ◇金敬錫商店

海平 地士 改良稧

金象鎬

龜尾 朴奉甲

朴達夏

龜尾面 職員一同

舞乙 白承業

開寧 金東植

龜尾 金基培

玉城面職員一同

海平 崔元浩

海平 崔昌東

海平 黃先伊

善山郡海平市場 各種布木 雜貨 貿易 金相祚商店

魯日權

海平 李達春

海平 崔鍾奭

海平 全海龍

海平 金俊伊

海平 景淵光

舞乙 白承萬

高牙 張敬在

朴……

昨年朝鮮貿易總額 二十億圓을內迫

輸移出八億七千九百六十萬圓
輸移入十億五千五百八十萬圓

輸移出二割八分增
輸移入二割二分增

昭和十三年에잇서서의 朝鮮對外國及對內地貿易總額은 十九億三千五百四十五萬三千圓으로 其中輸移出은 八億七千九百六十萬一千圓 輸移入은 十億五千五百八十五萬二千圓을 算하야모두前年의新記錄을 更新하엿다 그리고이것을 前年에 比較하면 輸移出은 一億九千四百五萬八千圓(二割八分)輸移入은 一億九千二百二十九萬九千圓(二割二分)을各各增加하고 輸移出入總額에잇서서는 三億八千六百三十五萬八千圓(二割五分弱)의 增加를보엿다

昭和十三年朝鮮對外國及對內地貿易額

區別	十三年	十二年	增減額	同上比率
輸移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移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移入超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入超一億七千萬圓 比前年百七十萬圓減

入超額은 百七十五萬九千圓을減하고 一億七千六百二十五萬圓에達하야 그多額인것은 實로前年의 그것에 버금되는바 即如左하다(單位千圓)

品名	昭和十三年中對滿關支輸出額	前年對比增減(△)
米	[illegible]	[illegible]
小麥粉	[illegible]	[illegible]
세멘트	[illegible]	[illegible]
礦油	[illegible]	[illegible]
水產物	[illegible]	[illegible]
煙草	[illegible]	[illegible]
林檎	[illegible]	[illegible]
淸酒	[illegible]	[illegible]
牛	[illegible]	[illegible]
燐寸類	[illegible]	[illegible]
魚介罐詰	[illegible]	[illegible]
麥酒	[illegible]	[illegible]
革類	[illegible]	[illegible]
藁叺	[illegible]	[illegible]
紙類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石鹼	[illegible]	[illegible]
陶磁器	[illegible]	[illegible]

또對圓『뿔럭』輸出은 輸出抑制及原料의 入手難等으로 因하야木材 人絹織物 綿絲 精糖 打綿 고무靴及고무底綿靴等의 出荷가顯著히 不況을 告하엿서도 滿洲國의 經濟的發展 北支及中支의治安工作의 進展及 兩國政府의關稅引下를 好感하야 絹織物에잇서서 一億一千五十萬圓(對滿五〇五八千圓對支五四四千圓)을 激增한것을 爲始하야 [illegible]을 모두 激增하엿스므로 結局圓『뿔럭』輸出은 一億六千二百八十九萬圓(內對滿關 一億四千七十四萬圓 對支 二千二百十五萬圓)으로 躍進하야 前年對比對滿關輸出에잇서서 四千八百五十九萬圓(五割二分)을 對支輸出에잇서서 一千七百三十一萬圓(三十五割)을 各著增하엿다

他方輸入에 잇서서는

滿洲國 五千八百五萬二千圓 (總輸入額의四割三分)
支那 一千二百二十一萬六千圓 (同 九分)
關東州 一千十五萬六千圓 (同 八分)
第三國 五千四百十五萬七千圓 (同 四割)

으로 前年對比 對滿洲國(關東州를包含)九十四萬圓(一分)을 減少하고 이에 反하야 支那는 百八十四萬圓(一割八分) 第三國은 五百五十四萬圓(一割一分)을 各增加하엿다 그런데 滿洲國으로부터의 輸入減은 北鮮三港經由의滿洲大豆 積戾扱에 轉換한 結果輸入統計上 除外된데 因한것으로 支那의 增加는 主로 北支出의棉花 石炭等의 入荷가顯著하엿섯는데 因하고 第三國으로부터의 輸入增은 爲替管理의強化에따라 機械類 原料糖 葉煙草 玉蜀黍 毛織物 印刷料紙等의 入荷가顯著히 減退되엿데도 不拘코 內地經由移入에서 直輸入에 轉換한 印棉及 米棉의入荷가 前年의 二千二百萬圓에서 一千七十五萬圓에 達한것을 爲始하야 生고무 牛皮等 生產資材의 入荷가 모두 二百萬圓內外를 增進한데 基因한것인데 即如左하다 (單位千圓)

(가) 對滿關支輸入重要品

品名	昭和十三年輸入額	前年對比增減(△)
粟	[illegible] (內對滿、對支)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棉花	[illegible]	[illegible]
豌安	[illegible]	[illegible]
大豆	[illegible]	[illegible]
柞蠶生絲	[illegible]	[illegible]
豆粕	[illegible]	[illegible]
天日鹽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胡麻子	[illegible]	[illegible]
叢椒	[illegible]	[illegible]
支那麻布	[illegible]	[illegible]

(나) 對第三國輸入重要品

品名	昭和十三年輸入額	前年對比增減(△)
棉花	[illegible]	[illegible]
機械類	[illegible]	[illegible]
生고무	[illegible]	[illegible]
燐礦石	[illegible]	[illegible]
牛皮	[illegible]	[illegible]
葉煙草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毛織物	[illegible]	[illegible]
印刷料紙	[illegible]	[illegible]
玉蜀黍	[illegible]	[illegible]

對外國貿易出超

─三千四百四十八萬四千圓─
從前入超를克服躍進

昭和十三年에잇서서의 朝鮮對外國貿易은

輸出 一億六千九百六萬六千圓
輸入 一億三千四百五十八萬二千圓
合計 三億三百六十四萬九千圓
出超 三千四百四十八萬四千圓

前年對比 輸出五千五百九十六萬八千圓(四割九分)輸入六百四十八萬三千圓(五分)合計六千二百四十一萬二千圓(二割六分弱)의 增進을보이엇다 그리고 出入의均衡에잇서서는 從來 多年入超가繼續되고 此數年來 若干輕減된傾向이잇다하야도 아직 昨年에잇서서 一千五百萬圓의 入超를呈하엿섯는데 五月以降 出超에轉한結果 前述과如히 드디어 三千四百四十八萬四千圓의 出超를보이어 朝鮮對外國貿易史上 空前의 新記錄을現出하엿다 即如左하다 (單位千圓)

昭和十三年對外國貿易額

區別	昭和十三年	同十二年	增減額	同上比率
輸出 (朝鮮產 內地產 外國產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輸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入超過	出超 [illegible]	入超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電球、黑鉛、紅蔘及 絹絲等相當히 減少되엿스므로 一面魚粉의北米向의 依然한好況과獨逸向新規輸出에 百十一萬圓(三十六割)을 著增하고 또새로히『코오일』及經木製『몰』의 北米向前者八萬五千圓、後者一萬九千圓을算하엿스나 結局第三國向輸出貿易은僅히六百十七萬圓에 不過하야 前年의 一千六百十一萬圓에對하야 九百九十四萬圓(六割二分)의 減을보이엇다

第三國向輸出激減
圓뿔럭輸出激增

다시이것을 主要相對國別에對하야 其趨勢를보면 輸出에잇서서는

滿洲國 一億二千二百萬二千圓 (總輸出額의七割二分)
支那 二千二百十五萬五千圓 (同 一割三分)
關東州 一千八百七十三萬七千圓 (同 一割一分)
第三國 六百十七萬圓 (同約四分)

即 第三國에對한 輸出은 爲替管理, 輸入統制强化에依한 原料의入手難及 國內物價昂騰에依한生產『코스트』의增大에因한輸出製品高及 海外商況萎靡等을反映하야 各品에亘하야거의 出荷不振에빠저 即 琺瑯鐵器는 前年의二百二千二萬圓에서七十七萬圓으로 魚油는 二百二十四萬圓에서二十一萬圓으로 絹織物은 百六十二萬圓에서 八十二萬圓으로 人絹織物은 百五十九萬圓에서 六十九萬圓으로 葉煙草는 百五萬圓에서十七萬圓으로 陶磁器는 八十二萬圓에서四十八萬圓으로 魚介罐詰은 五十萬圓에서二十[illegible]

米輸出著增
米移出激減
粟輸入은倍나增加

總督府 財務局調査에依한 昨年十二月中의 米輸移出高는 一百六萬七千二百六十九石으로 이를 前年同期에比하면 四十三萬八百九十五石의 激減인바 輸出高는 四萬八千石、移出高는百一萬九千二百六十九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輸出은二萬五千、六百四十石이 增加하엿슴에反하야 移出은 四十七萬六千五百三十五石의減을보이고잇다 輸移出을合한 十一月以降累計는 百八十一萬六千百八十一石으로 比前年同期 八十六萬三千四百八十石의 激減을 示하고잇스며 十二月의移入高는 一萬九千二百六十五石으로 比前年同月 一萬二千十六石이 減하엿는데 一方粟의輸入高는 八萬五千八百七十六石으로 前年同月의 四萬九百三十二石에比하면 四萬四千九百四十三石의 增이오 十一月以降累計 十二萬三千七百九十八石은 比前年同期八萬九千九百九十一石의 著增을보이고잇다

石渡新藏相歡迎
朝鮮에理解잇는사람

石渡新藏相에對하야서는 半島財界는 新藏相이 池田前藏相의 政策을 踏襲하고 急激한 變化를 與치안흐리라하야 一般으로 好感을 가지고잇는데 더욱 同氏가 財政通으로써 大藏省의 逸材이라는點에 多大한 期待를가지고잇고 特히 新藏相은 朝鮮에對한 理解가기퍼 從來豫算折衝에잇서서도 總督府財務當局으로서도 [illegible] 恒常 同情的態度로써 臨하고 過般의 殖銀少額債券發行問題에 際하야서는 積極的으로 總督府를 支持하는等 大藏省中 가장 半島에理解를가진 一人이라하야 歡迎하고잇다한다

期米、株式初市勢豫想
懸賞募集適中者發表

事變第二年、興亞第一年 新春에서 政變으로 開幕이되엇다 異常한緊張裡에 [illegible]을울린바 本社에서 懸賞으로期米、株式의 初立會價를 募集한데對하야 期限인二日까지 本社着分만이 一千三百十二枚의 應募가잇섯고 其中適中者七十七名이엇다 規定에依하야 六日正午 本社內에서 警官立會下에 適中者中에서 [illegible] 記者氏가 新年辛運兒로 當選이 左와가티決定되엇다 (當選은抽籤先着)

◆朝取期米 (三月限發會價) 三十三圓九十七錢 (適中者三十四名)
一等 (京城府新設町[illegible]) 崔錫烈
二等 ([illegible]) 金[illegible]
三等 ([illegible]) [illegible]

◆朝新株 (朝取短期前場寄價) 三十三圓三十錢 (適中者三十九名)
一等 (京城府[illegible]) 朴昌圓
二等 ([illegible]) [illegible]
三等 ([illegible]) [illegible]

◆東新株 (朝取短期前場寄價) 百二十三圓七十錢 (適中者四名)
一等 ([illegible]) 崔昌文
二等 ([illegible]) [illegible]
三等 ([illegible]) [illegible]

(備考)=東新의 適中者는 四名에不過함으로 四名에서 一等一人、二等二人、三等一人을 抽籤하고 最近價六枚中에서 三等三人을抽籤함

寸鐵

▼…池田藏相에代하야 石渡藏相 八田商相에代하야 [illegible]商相이登場
▼…石渡氏라면 舊藏某百貨店을 視察하고서 消費節約 不徹底를 歎하고 奢侈黨에 加一棒코서 商品券課稅를 嚴命든 大藏次官이엇다 事務的 才能發揮나 바랄가
▼…昨年中 朝鮮의貿易總額은 二十億을 內迫하는 記錄的 躍進 今年은 第三國輸出增進에더욱 힘쓰자

株式 反高後에崩落

今日의市勢 (六日)

前場反騰 休日을지난 今朝는 平沼內閣成立에依한 政局安定으로 人氣도落着되어 東新一圓四高인 一二二圓四、鐘紡三高인 一四二圓三 鐘新不變인六七圓二에 一騰寄付後 高價買는依然警戒되어 閑散裏에 推移하다가 結局東新一二二圓八、鐘紡一四二圓七에 伸惱大引

後場暴落 前場一騰의 뒤를이어 後場은 東新一圓低인一二〇圓二 鐘紡四低인 一四二圓三에 低落寄付後 東新中心으로再崩되어 드디어 一二〇圓臺割을보아 七圓九까지 棒下되엇스나 引際에는 小戾되엇다

政局安定好感

政局不安을反映하야 今年初立會는 例年에보지못하던 不勢裡에 終始하엿섯는데 四日中에도 近衞內閣의 退陣을보고 昨五日中에는 平沼新內閣이 組織되는 急激한政局의 變遷을보앗는데 內閣辭職은 이미四日初立會에 織込되엇던바이라 今朝는 新內閣成立에依한 政局安定으로 市場人氣도 落着되어一騰을演하엿다 元來今般의政變은 決코 突發事가아니고 이政變에꼬지게한 昨年末高市勢를 不[illegible] 한가지原因이엇던[illegible]

市場六感

株…初立會後에는 內閣總辭職을보고 休日中에는 新內閣의出現을 보앗스니 政變도株式에는 그다지 큰衝擊이업슨모양▲政局安定에따라 市場人氣도 一日落着인 모양이나落着은 어디까지나 落着이어서▲政局이 安定되엿다고하야株界의 好轉은 바랄수업는것▲그뿐아니라 新內閣에依하야 諸統制는 一段强化될것이 分明하니 시원한일이업슬듯▲此[illegible]

米…波瀾의 一幕이잇슬것으로 豫期하엿든 新春劈頭의市勢도別妙味가업시 保勢로終始▲二百萬石買上은 絕對好成績으로 全部完了되어 一段高價를豫想케하엿섯스나 實際에잇서서는 何等의行動을 加하지못하고 結局伸惱頭重勢뿐▲最高公定米價의 城壁이잇는만큼 市勢의갈길은 下方박게업슨즉 賣方針도 容或無怪▲그러나 下勢狀으로 定米를擁抱한 農家의그自身이 絕對賣惜又는 平均賣의方針을 取하고잇슨즉 此亦難期?

期米 買氣不昂 低落

前場少弛 今朝阪地三十六圓二十六錢인 八丁高를 接하고 當限은三十三圓八十四錢인 十二丁高中은三十三圓八十一錢인 三丁反落으로 先限은 三十三圓八十九錢인 一昨比의 同樣으로 場을始한後阪地二十錢으로反落하야 結局十六錢의 最低價에 止場함을 伴하야 七節八十一錢으로 八十二錢에 止場하엿다

後場釘付 後場은 三十三圓八十二錢인 一丁低로場을始한後 二節八十一錢 三節八十錢 四、五節은 八十一錢이엿다

保勢로送舊迎新

政府米二百萬石買上을압두고 一[illegible]

正米 正初로閑散

京城强調 正初이라 大口處에서 버티지못하고 崩壞?

國債下押【東京電話同盟】

平沼內閣出現으로 政局이 安定되고 財政方針도 大體不變으로 보이나 多少五分利債借替念慮도 잇서 買氣사못不昇이오 甲號二回五分十五錢乃至二十錢 下押이엇다 米貨는 六分半 一圓五十錢 五分半 一圓下押이엇다
▲甲號五分 一〇三、五五▲一回四分 一〇三、〇〇▲二回四分 一〇三、〇〇▲二十三年物九八、七五▲二十八年物九八、二五▲佛貨四分 一九九、〇〇▲米五分半 一二七、〇〇

新情勢와株界

年初突然히 內閣更迭을 보게되어 市場은 적지안흔 衝動을 바다 今年初立會를 暗影하게하엿던것이 休日中에 新內閣出現에依한 政局安定을보게되자、落勢는거우 下止된모양인데 新政治情勢는 市場에如何한 影響을 미칠것인가 大體로보아 新內閣의 財政政策은 池田前藏相의 것을 踏襲할것이라하니 只今直時急激한 變動이생길것은 勿論아니겟스나 新內閣이 統制의一段强化를 圖謀할것은거의 分明한事實이니 이에依하야 株界도相當한 影響을 벗지안흘수 업슬것이다그러나 一方 株界에서도 統制强化라는點에 對하야는 前부터 覺悟를굿게하고 잇는바이며 新內閣에依하야 統制가 一段强化된다하더라도 이로써 會社가狼狽할것은아니겟스나 此際에如何한일이잇더라도 衝動을밧지안토록 警戒를更新할必要가잇슬것이다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三、期거의同鞘

新甫三月限은 例에依하야 三十三圓九十七錢인 十五丁上鞘로發會하야 三十四圓臺를突破 一時的氣勢이엇스나 高價에는 自然賣氣阻止되어 [illegible] 八十一錢까지 下押하야 [illegible]

今日財界大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京城一等米一石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株 (單位十錢)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鐘紡 [illegible]
◆商品 (單位錢) 人絹 [illegible] 綿絲 [illegible] 砂糖 [illegible]

仁川屆區 · 釜山保合 · 大邱軟化 · 群山閑散 · 木浦不動

[illegible]

物價

牛皮暴落

牛皮市勢는 越年後 暴落을演하얏는데(物價調整令)도 今後에것서서는 牛皮(乾皮)의 頭、足、尾等을 切斷하여야 賣買할수잇게되엇스므로 一般業者의 注意를要하게되엇다한다

石油昂騰

石油中發動機青油、白燈油、青燈油는 容器의値上으로 因하야 如左히昂騰되엇다 (二罐新裸單位錢)

	舊價	新價
發動機青油	五、九五	六、一五
白燈油	六、七五	六、九五
青燈油	七、三五	七、五五

海外經濟 (四日)

[illegible]

銀行券 (四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麩油粕麥粉

◆阪神麩粕◆ [illegible]
◆阪神麩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賣買代引日步◆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illegible] 累計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京城物價 (六日)

[illegible]

商品市勢 (六日)

▲果實類 [illegible]
▲海產物 [illegible]
▲菜蔬 [illegible]

期米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京城 仁川 金益證券

株式 期米 マルマ取引店 仁川本町